통전적 교육이 새가족 정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선창교회, 장유대성교회 새가족 사역을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이동철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8년 5월

Copyright © 2018 Dong Choul Lee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Holistic Education for Ministry of New Members
A Case Study of Sun Chang Church and JangYuDaeSung Church, Korea

Dong Choul Lee

Sun Chang Church and JangYuDaeSung Church, Korea

Since the 1990s, Korean Church has grown to an unprecedented extent in the world. Thousands of new members were educated in the church and began their religious lives as believers. But, today, Korean churches are heading toward a decline after the period of stagnation. They have not received a positive reputation they deserved.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but I think one of the main reasons is the result of poor care of new members. The seemingly positive growth of churches was possible due to the large influx of the new members despite of the lack of proper education and care for new members, but the growth and maturity of faith, which new members should have, have rarely achieved. Korean churches that provide a new member class used to think that it was enough when a new member finishes his/her class. However, the churches should have considered what our new members really needed, and whether they could grow in faith only through just onetime new member class.

This ministry will also find that it is not just a responsibility of pastors or church leaders who were in charge of new members, but also the responsibility of all to share among all members in the church. And when the existing congregation is always growing up and becoming mature in their faith, new members can grow up emulating them.

New members are spiritual children. The church has to teach them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and be with them and take care of them. It cannot be just a few hours of education, but just like a mother-child relationship, the church needs to be with new members. Only then new members will be able to settle in the church and grow

up in it with a sense of security and trust.

국문초록

통전적 교육이 새가족 정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선창교회, 장유대성교회 새가족 사역을 중심으로

이동철

선창교회와 장유대성교회, 한국

1990년대부터의 한국교회 부흥은 전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수많은 새가족들이 교회로 찾아왔고, 교회 안에서 교육받고 성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체기를 지나 쇠퇴기로 가고 있다. 교회를 바라보는 눈 또한 결코 곱지 않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중요한 한가지 이유는 새가족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새가족이 많이 들어온 만큼 그들을 향한 교육과 보살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겉으로 보는 교회의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새가족이 가져야 할 믿음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새가족 교육을 하더라도 단지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새가족을 위한 것은 다 했다는 식이다. 새가족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소개나 교육만으로 새가족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역은 단지 새가족을 담당한 목회자나 사역팀만의 몫이 아닌 교회

안에 미리 식구가 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몫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늘 성장하고 성숙할 때 새가족도 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다.

새가족은 영적인 어린아이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가르쳐주고 함께하고 보살펴주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몇 시간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듯이 교회가 새가족과 함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럴 때 비로소 새가족은 교회 공동체 안에 정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목 차

감사의 글 x

표 목차 ix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Ⅱ. 새가족에 대한 신학적 근거 5

새가족의 정의 5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새가족 8

구원을 향한 신앙의 순례자 11

새가족 교육의 필요성 14

Ⅲ. 통전적 새가족 교육 24

‘통전적’ 단어의 정의 25

통전적 새가족 교육의 정의와 범위 29

교회 생활 32

제자의 삶 36

Ⅳ. 한국교회와 새가족 교육 43

새가족 교육의 당위성 결여 43

익명화 44

교회의 대형화 45

구원에 대한 확신의 부재 46

신앙인의 삶의 이중성 46

V. 선창교회, 장유대성교회 새가족 사역 프로젝트 실행 48

선창교회 새가족 사역 프로젝트 48

장유대성교회 새가족 사역 프로젝트 66

VI. 결론 84

요약 및 평가 84

결론과 제언 87

부록 91

참고 문헌 123

표 목차

<표1> 6교구 구조 56

<표 2> 장유대성교회 정착율(2010-2016 년) 69

<표3> 2017년 새가족 사역 주일 사역 시간표 70

<표4> 새가족 교육교재 목차 72

<표5> 주차별 바나바 사역 내용..... 73

<표6> 2017년 새가족 정착현황..... 77

감사의 글

그리 오해 살지 않은 짧은 인생이었지만 걸어온 발자국을 뒤돌아볼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DREW 대학의 목회학 박사 과정을 알게 되고 끝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지도해주신 김혁 목사님과 한재엽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생길 무렵 우연히 김혁 목사님의 권유로 통성경을 알게 되고 좋은 스승과 함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또한 통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통전적으로 보게 하시고 항상 좁은 시각으로만 성경을 보던 저에게 성경의 숲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깨닫게 해주신 통(通)박사 조병호 박사님, 자신의 삶을 학생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으시며 인도하시고 열정으로 지도해주신 김영래 교수님, 내러포로 갇혀 있던 생각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통찰력을 전해주신 DREW대학의 레너드 스윗 교수님을 통한 가르침이 그 전환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함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배려해주시고 함께 동역해 준 선창교회와 장유대성교회 교우들의 기도와 협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의 늦은 공부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신 아버지 이익원 님과 어머니 최숙희 님에게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사모로, 아이들의 엄마로, 며느리로, 그리고 돕는 배필로 도와준 아내 이송미의 기다림과 사랑에 이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 감사의 보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제가 받았고 고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8. 5.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따라 살길 원하는

이 동 철

제 I 장

서 론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한국교회는 복음이 전해진지 불과 한세기 동안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이같은 성장은 세계 어느 곳에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성취를 직접 보고 배우려고 세계 각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을 찾아왔다. 한 때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했지만 한국에서는 전체 인구 중 25%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타이틀을 얻은 교회가 여럿 등장하는 등 외형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한국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외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내적인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또한 매주 교회에 출석해 스스로 등록하거나, 전도되어 오는 사람들은 증가했지만 일 년을 결산해보면 실질적 숫자의 증가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회마다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양적인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질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성도들의 질적인 성장,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이는 교회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

교회성장학자 윈안(Win Arn)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길이 평신도의 은사와 잠재력을 발견하고 사용하는데 있다고 단언한다.[1] 또한 게리 쿠네(Gary W. Kuhne)는 교회가 교세확장을 위하여 여러 방법의 전도와 행사를 통해 많은 결신자를 얻고는 있으나 관리와 육성의 부족으로 그 중 대부분을 잃고 있다고 지적한다.[2] 이는 교회의 실질적 성장은 질적인 성장 즉, 성도들의 신앙성장에 기반을 둘 때 비로서 성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미 이러한 문제점에 당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가족의 정착과 사역에 대하여 방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태도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전도의 열매인 새가족을 어떻게 정착시키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새가족들을 충분히 양육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많은 헌신과 시간들이기를 주저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새가족 정착사역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기독교교육이라는 것은 단지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학교교육이었다. 반면 성인교육은 철저히 배제되어왔다. 한때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이 유행처럼 교회마다 번져갔지만, 실제 성도들의 신앙성장으로까지 이어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새가족들에게는 더욱 더 그러하다. 단지 새가족이 교회에 오면 일정시간 동안의 간단한 기초교육, 시간이 지나면 세례교육이 전부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결정하지 않는 이상 어떤 신앙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 새가족 교육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지

---

[1] Win Arn, *The Pastors Church Growth Handbook*, 임방환 역, *교회성장 핸드북* (서울: 요단출판사, 1981), 15.

[2] Gary W. Kuhne, *The Dynamics of Personal Follow-Up*, 정학봉 역, *개인적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서울: 요단출판사, 1979), 24.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교인, 형식적인 성도, Sunday Christian으로 전락되기 쉽다.

존 웨스터호프(John H. Westerhoff)는 신앙공동체가 기본적으로 학교형 교육의 범례(schooling instruction paradigm)를 추종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이론과 실천의 교육과정인 "신앙공동체 문화화 범례"(community of faith-curriculum paradigm)를 제시하고 있다.[3] 이 교육과정의 목표는 기독교인의 삶의 스타일은 기독교인의 삶을,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보고 행동하느냐는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전인적인 삶을 말한다.[4] 그리고 밀러(Donald E. Miller)는 교육이란 경험이 많은 안내자들이 공동체 전체의 의해 자발적이고 계속적이며 의도적이고 상호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한다.[5] 또한 해리스(Maria Harris)도 교회를 위한 교육과정은 평생의 소명이며 코이노니아(Koinonia)로부터 시작하는 교회생활의 전 과정이 교육과정이 된다고 한다.[6] 이와 같이 새가족이 정착할 신앙공동체 교육은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하면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교육은 단지 표면적인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신앙공동체의 삶으로 교육되어야 하며,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때 새가족은 비로소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해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먼저 새가족 교육 과정을 통전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그 원리와 방법을 소개함으로 새가족 정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새가족 교육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여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

[3] John H. Westerhoff,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6), 77.

[4] John H. Westerhoff, *A Colloquy on 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 United Church Education, 1972), 68.

[5] Donald E. Miller,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고용수·장종철 역, *기독교 교육 개론*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9), 32.

[6] Maria Harris,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고용수 역, *교육 목회 커리큘럼*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46-48.

성장의 후퇴현상들을 해결하며, 나아가서 교회의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동기와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을 위해서 기존의 단편적인 새가족 교육이 아닌 전인적인 삶을 위한 통전적 교육의 모형 연구를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전체 장으로 구성한다.

제 1장은 서론 부분으로 본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 및 범위를 설정한다.

제 2장은 새가족에 대한 신학적 근거로서 새가족의 정의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새가족 위치, 그리고 새가족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 3장은 기존의 새가족 교육이 아닌 통전적 교육의 정의와 범위를 제시함으로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생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범위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통전적인 교육의 범위를 제시한다.

제 4장은 현재 한국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며 새가족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들을 신앙안에서 성장하고 성화시키는 방향을 제시한다.

제 5장은 실제적으로 통전적 교육 프로젝트를 실행한 절차와 분석, 평가를 제시한다.

제 6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에 대한 요약 및 평가 제언을 기술한다.

제 Ⅱ 장

새가족에 대한 신학적 근거

새가족이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새가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고 믿음을 받아들여 교회에 출석하게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성도들 간에 유기적인 상호관계인 것처럼 새가족도 그 유기체의 한 일원이 되어 교제를 나누며 공동체에 적응하게 된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신자들은 기초적인 신앙교육부터 시작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변화되고, 그들의 전인격적인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단지 이것은 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기신자라 할지라도 새롭게 들어간 공동체 내에서 유기체의 한 일원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신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새가족의 정의

과거 성장했던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정체현상이 나타나며 '새가족' 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졌다. 왜냐하면 성장할 시기에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대부분은 전혀 기독교 신앙을 접해 보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온 경우이지만, 요즘과 같이 정체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등록한 새가족은 이미 다른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거주지 이동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다른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서 새가족에 대한 유형별 정의가 필요하고, 그 유형에 맞는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새가족의 어원과 정의

성경에서 나타난 새가족은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한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의 상황으로 보아 베드로와 사도들의 복음선포를 들은 무리들이 3,000명씩(행 2:41), 5,000명씩(행 4:4) 교회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즉,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새가족의 어원은 생애에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1] 처음 믿는 새가족에 대해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서는 '원입인'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을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회개한 후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개체 교회에 출석하는 이"로 정의하고 있다.[2]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의 『헌법』에서도 '원입교인'으로써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로[3], 기독교 대한 성결회 『헌법』에서도 처음 믿은 사람을 '신입교인'이라고 부르며,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등록하고 주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로 정의한다.

---

[1] 김춘실, *소그룹 목회와 새신자 양육원리* (서울: 쿰란 출판사, 1999), 22.

[2]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1996), 62.

[3]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7), 188.

초신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교단마다 새가족을 정의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새가족의 원초적인 의미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하여 예배에 출석하는 자로 보편적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고, 본 논문에서는 이를 ‘초신자’로 정의한다.[4]

기신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주지 이동이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새로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타 교회에 출석하다가 이동해온 새가족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이미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교육보다는 이전에 있던 교회와 다른 새롭게 속하게 된 교회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함을 가지고 정착하기 위해 돕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평이동한 새가족들을 ‘기신자’로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하고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를 위한 신앙성장과 양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이를 돕기 위한 커리큘럼, 시스템을 보다 통전적인 관점의 연구이다. 또한 타 교회에서 수평 이동해 온 ‘기신자’를 위해 교회에서 더욱 잘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통전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

[4]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헌법* (서울: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출판부, 1996), 24.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새가족

새가족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의 성서적 근거를 신명기 7장 6-8절에서 찾을 수 있다.

> 6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히브리어, bahar)라는 선민사상은 신명기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다른 족장들에 관한 모든 전승(창 12-50장), 그리고 구약 전체와 신약에 나타난 유대인의 문화와 사상들도 모두 이 선민사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즉 그의 자손들이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창 12:1-3)이 바로 그것이다.[5]

고대 근동의 많은 국가들이 국가의 패망과 함께 그 민족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국가가 패망한 후(바벨론 포로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선민사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계속 되어졌기 때문이다.[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크고(신 7:7) 의롭기(신 9:5)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

[5] Ronald E. Clements, *Old Testament Theology*, 김찬국 역, *구약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92.

[6] 장일선, *구약신학의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64.

이스라엘이 작고 약했기 때문(신 7:7)이라고 하셨다. 또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사랑하심 때문이라고(신 7:6-9; 9:4-8) 하셨다.[7]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오늘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신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새가족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존재이다. 교회는 유기적으로 성장해가는 머리 되신 예수와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로렌스 리처드(L.O. Richards)는 교회가 세상의 조직(Organization)과 구별되는 것은 생명을 지닌 유기체(Organism)란 점을 강조한다.[8] 즉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신앙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지체됨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4-15)라고 말한다. 에버리 덜레스(Avery Dulles)도 신비적 교제로서의 교회는 성령에 의해 생명력을 부여 받은 초자연적인 유기체로써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상은 다양한 기관을 갖추고 있는 인간의 몸에서 유추되었으며 서로 간의 관심과 협력하는 상호 인격적인 관계들의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9] 샬러(Lyle E. Schaller)는 새가족들이 교회 공동체에 동화되도록 포용성을 가지고 교제하며 그들에게 소속감을 갖게 하고 직책이나 역할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룬다고 말한다.[10] 그리고 마리아

---

[7] 구덕관, *구약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61.

[8] L. P. Richards, *A Theology of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8), 117.

[9] Avery Dulles, *Model of the Church*, 김기철 역, *교회의 모델* (서울: 도서출판 조명문화사, 1992), 44-45.

[10] Lyle E. Schaller, *Assimilating New Members*, 고명수 역, *새교인 교육론* (서울: 대한

해리스(Maria Harris)도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한 가족들이 참여 내지 현존성(presence)과 수용성(receptivity), 그리고 책임성(responsibility)을 가지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 과제라고 주장한다.[11]

신약의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를 통한 새가족 양육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 2장 42-46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초대교회에 나타난 공동체에는 삶의 모든 방면에서 공통된 관심과 함께 서로 하나되는 삶을 가지면서 출발한다. 이들은 당시 그들에게 주어진 시련과 도전을 초대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 공동체적 주체성을 확립하고 곤고히 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오늘날 정체된 한국교회에 주어진 새가족 양육은 이러한 성경에 기반 된 신앙공동체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 유기적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새가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공동체인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일원이 된다. 그리고 그 공동체 내에서 교제를 통해 공통된 관심과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의 필요를 나누게 된다. 따라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두고 ‘코이노니아’라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기독교 출판사, 1982), 89.

[11] Harris, *Fashion Me a People*, 102.

나아갈 다른 길은 없다.[12]

구원을 향한 신앙의 순례자

새가족은 생전 처음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새로운 교회에 다니든지 상관없이 새로운 사람들과 환경, 그리고 그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 속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인 구원을 이루는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와 용서받음, 그리고 신앙의 성숙 과정인 성화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순례자이다. 구원에 관한 고전적, 현대적 논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였는지 결정하는 것을 그 임무로 여겨왔다.[13]

웨슬리(John Wesley)는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 그는 구원은 이른바 선행적 은총과 함께 시작된다. 구원은 회개하고 확신적 은총과 함께 수행된다. 회개는 보다 깊은 자각을 일으키고, 완고한 마음에서 보다 더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기독교의 고유한 구원을 경험한다. 이로서 신자는 '은총을 통하여, 신앙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즉 구원의 두 큰 지체인 의인(Justification)과 성화(sanctification)로 구성된다. 웨슬리는 신자들이 의인으로써 죄의 과오에서 구원되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되며 성화로써 죄의 뿌리에서 구원되고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회복된다.[14]

토마스 그룸(Thomas H. Groome)은 구원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에 의해 저

---

[12] Ibid., 92.

[13] Peter C. Hodgson & Robert H. King, *Christian Theology*, 황승룡 역, *기독교 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2), 275.

[14] Colin W. Williams, *John Wesley's Theology Today*, 이계준 역, *존 웨슬리의 신학* (서울: 전망사, 1990), 41.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시작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가능해진 구원은 이 세상적인 동시에 저 세상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속 받은 백성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구원의 선물에 대해 응답하는 책임으로 역사 내에 참여하여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15]

제임스 파울러(James W. Fowler)는 인간의 신앙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성화의 형태와 과정을 6단계로 분류한다. 첫 단계 이전 영아기 단계에서의 신앙은 기본적 신뢰라는 원천이고, 일차적인 사랑과 돌봄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 과의 관계적인 상호성의 경험이다.[16]

제1단계(3-7세) 직관적-투사적 신앙(intuitive-projective faith): 이 단계의 아동들은 환상을 가지고 자신을 느끼고, 감정적이며, 좋아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17]

제2단계(7-11세) 신화적-문자적 신앙(mythic-literal faith): 이 단계는 경험의 기반 위에서 현실과 비현실을 구별하기에 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상징적 표상들을 제공한다.[18]

제3단계(12-18세) 종합적-인습적 신앙(synthetic-conventional faith): 이 단계에서는 사회 안에서 자신의 동질성과 위치를 찾기 위해 타인의 영향에 의존하고, 기준이 타인에게 있기에 스스로 행동하지 못한다.[19]

---

[15] Groom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152-153.

[16] Fowler, *Stages of Faith*, 198-199.

[17] Ibid., 201.

[18] Ibid., 220-221.

[19] Ibid., 247.

제4단계(18-30세) 개별적-반성적 신앙(individuative-reflective faith): 이 단계에서부터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시작된다.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그룹 속에서 유대관계를 맺게 되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갖게 된다.[20]

제5단계(30-40세) 결합적 신앙(conjunctive faith): 이 단계에서는 대화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징들, 신화들, 의식들(rituals)의 진가를 안다.[21]

제6단계(40세 이상) 보편화된 신앙(universalizing faith): 이 단계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관대함과 권위, 자유와 희생적 사랑으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안다.[22]

이러한 인간의 성장하는 과정은 신앙의 순례자로서 회개와 용서받음, 신앙의 성숙 과정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새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쿠네(Gary W. Kuhne)는 새가족을 영적인 어린아이로 이해하고 있다(요 3:3; 고전 3:1; 벧전 2:2; 요일 2:12-14). 그들은 사랑, 보호, 양식, 훈련 등이 나이에 따른 인간의 신앙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데 있어서 새가족과 같은 초기에 필요한 것들을 도움 받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말한다.[23]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

[20] Ibid., 293-294.

[21] Ibid., 318-319.

[22] Ibid., 338.

[23] Kuhne, *The Dynamics of Personal Fellow-Up*, 20.

이르리니" 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경적, 신학적 근거에 의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새가족을 신앙적으로,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성장시켜 그리스도를 알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통전적인 새가족 양육이라 할 수 있다.

새가족 교육의 필요성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란 교인 수나 재정의 역량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본성과 의무를 충실히 감당함으로 된다. 단지 교회 안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는다.[24] 이러한 교회의 내적 활동뿐만 아니라 여기서 얻어진 힘을 외적 활동에까지 신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를 성숙한 성도라 말한다. 그래서 성숙한 교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새가족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조직을 통해서가 아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새가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가족의 취약성

신생아는 병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돌봄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새가족 또한 외부적으로는 새로운 환경, 문화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생활로 인한 부적응으로부터 오는 공허함이 있는데, 이것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잘

---

[24] James D. Smart,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정윤철 역, *교회의 교육적 사명* (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77), 132.

사용하지 않는 낯선 단어들, 접해보지 못한 맥락과 어색한 예배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외로움 등은 새가족으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 점이 바로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새가족이 갖고 있는 취약성이다.

이런 새가족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먼저 그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주는 일이다. 하지만 새가족은 영적 유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먹여주고 스스로 섭취할 수 있도록 도울 영적 부모가 필요한 것이다. 만일 이러한 영적 부모가 새가족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자라지 못하도록 방치한다면 교회의 병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는 영구적 영적 유아의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가족이 영적 유아의 상태임을 교회는 인식하고 새가족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가족의 가변성

새가족의 두 번째 특성은 가변성이다. 새가족은 교회에 등록하고 회심한 때도 중요하지만 회심한 후의 신앙이 형성되는 시기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회심한 후 배운 버릇이나 습관, 문화가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후에 고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새가족이 등록한 후 교회에서 하는 짧은 새가족 교육 이후의 새가족을 위한 교육(새가족 육성)에게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새가족 육성이 공중예배나 소그룹 활동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봉사와 헌금의 잣대만으로 새가족의 신앙여부를 판단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새가족들이 기형적으로 자라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문화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문화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나아가서 세상의 문화와 기준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새가족이 등록한 직후의 시기뿐만 아니라 새가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보살피고 가르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새가족 교육의 성경적 근거

새가족 교육의 첫번째 성경적 근거는 사랑의 교제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인간의 어떤 행위도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전 12:1-3). 이는 그 근본에 사랑이 바탕이 된 행위들만이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전 4:1)고 권면하고 있다. 영적인 유아기이고 자라나는 새가족에게 이러한 사랑은 더욱 더 필요한 것이다. 단순히 말로나 지식전달만으로 논할 수 있는 지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고 그것은 사랑이 기반 된 교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교제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표현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신약 성서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25] 이 교제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다. 영적 부모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각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

[25] Alvin J. Lindgren, *Foundation for Purposeful Church Administration*, 박근원 역, *교회개발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7), 52.

있어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있어서 더욱 커진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교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서로서로 더 가깝게 해준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사랑의 교제는 개인과 개인간에 더욱 친밀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의식을 갖게 하며 성도 간에 서로 섬기는 성도로 성장하게 한다.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경험한 새가족은 또 다른 새가족에게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새가족 교육의 두번째 성경적 근거는 영적인 영양가 있는 음식이다. 선한 마음과 영적인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지만, 영적이고 지적인 면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음식도 반드시 필요하다. 죠지 스위딩(George Sweeting)은 “모든 신자가 먹어야 할 영적인 음식으로는 성경을 대신할만한 것이 없다”[26]라고 하였다. 영적인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27]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진리요 영이기 때문이다(요 6:63). 영적인 음식과 영양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요 15:3). 말씀으로 깨끗해 질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말하는 의도와 목적을 모를 것이며 나아가서 세상의 기준이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기에 새가족이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는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한다. 온전한 성도이란 온전하게 준비된 성도를 말한다. 이것은

---

[26] George Sweeting, *How to Begin the Christian Life* (Chicago: Moody Press, 1980), 40.

[27] Ray C. Stedman, *Body Life*, 홍성국 역, *그리스도의 지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161.

성경을 떠난 지식이나 인격이나 교양도 성도의 자격이 될 수 없다.[28] 또한 어떤 성령의 은사의 유무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덕인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음의 여부를 말한다. 이 모든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과 동시에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다.

보호와 훈련

새가족 교육의 세번째 성경적 근거는 보호와 훈련이다. 유아들은 연약하고 면역성이 없어서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점은 영적 유아인 새가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새가족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데 이는 새가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약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월터 헨릭슨(Walter A. Hemrichsen)은 새가족이 이러한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구원의 확신을 말한다.[29] 그러므로 새가족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줘야 한다. 하지만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멈춘다면 새가족은 다시 성장을 멈추고 주저 앉고 말 것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 줘야 하며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어야 한다. 새가족 훈련의 목적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직면한 시련을 말씀으로 극복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

[28] 이상근, *신약주해 살전-디도*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78), 289.

[29] Walter A. Henrichsen, *Disciples are Made*, 한국네비게이트선교회 역, *훈련으로 되는 제자* (서울: 한국 네비게이트선교회, 1981), 80-81.

새가족 교육의 역사적 고찰

새가족 교육의 역사를 고찰하여 각 시대마다 특징 지워진 새가족 교육 과정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본격적인 새가족 교육은 1-2세기의 디다케(Didache)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톨릭교회는 나름의 교육과정을 철저히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 반면, 기독교는 교육과정이 매우 축소되거나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초대교회의 교육과정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시대마다 했던 새가족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자 한다.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새가족 교육

1세기 말부터 2세기에 접어들면서 교회에 있어서 3가지 큰 변화가 생겼다. 당시의 교회는 신약 성서의 기록이 완성되고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3가지 큰 변화는 성서의 정경화 작업과 신조 만들기, 그리고 교회조직의 탄생이다.[30] 이러한 큰 변화가 생긴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기독교로 개종해온 이방인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들을 가르쳐야만 했다. 둘째는 금방 다시 일어날 줄 알았던 재림이 지체되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를 변증할 필요성이 재기되고 있다.[31]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자녀들이 성장해 갔다는 점이다. 당시 교회의 기본적인 성격은 선포하는 교회이지 가르치는 교회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이유로 인해 교회는 개종한 이방인과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알도록 해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

[30] 김태원, *기독교 교육사* (서울: 육일문화사, 1993), 41.

[31] 김태원, *교회교육 커리큘럼* (서울: 종로서적출판사, 1986), 32.

기다려야 할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과 책임을 자각하게 되었다.[32] 그래서 교회는 점차 '선포하는 교회' 에서 '가르치는 교회' 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고, 그 첫 교육교재가 디다케(Didache)인 것이다. 디다케는 희랍어로 '가르침' 이란 뜻으로 『열두 사도 교훈집』이라 불리운다.[33] 이 디다케는 2부로 구성되어 1부(1-5장)는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강령으로 삶의 길과 죽음의 길을 대비시켜 설명한다. 2부(6-16장)는 교회 직제에 관한 지침서로서 세례, 금식, 성만찬, 순회하는 예언자들과 감독과 집사의 개체교회에서의 사역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34] 그런데 루이스 쉐릴(Lewis J. Sherril)에 따르면 이 교육에 있어서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대상이 유대인일 경우에는 1) 히브리 성서의 메시아에 관한 연구 2) 기독교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3)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주를 이룬다. 반면 대상이 이방인일 경우에는 1) 삶의 방법과 같은 도덕적 가르침 2) 기독교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3)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4) 헬라어로 번역된 성서를 통한 가르침 등이 있었다.[35]

초대교회의 새신자 교육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후기로 접어들어 '가르치는 교회' 로 전화되면서 교육과정은 점차 카테키시스(Catechesis)로 자리 잡았다. '카테키시스' 라는 말의

---

[32] 오인탁 외 공저, *기독교 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6), 130.

[33] 김재은, "기독교 교육 교육과정의 변천", *신학과세계 제17호* (1988), 305.

[34] Ibid., 306.

[35] Lewis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 1944), 151.

어원은 '귀에 되풀이하여 들려준다' 는 뜻이다. 이 어원에 따르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탄생한 교육과정은 카테키시스 즉, 기독교 신앙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36] 그 교육의 중심에는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말씀인 1)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2)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3) 그리스도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37]

이러한 목적에 따른 최초의 형식적 교육은 초대교회에 의해 초신자 세례준비학교를 통해 나타났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3세기에 들어서면서 정규적 교육기관으로 성장 하긴 했지만, 1,2세기에도 이미 설립되어 개종자들을 교육하였다.[38] 이 학교의 목적은 지적 훈련을 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입교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때 당시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교육 시키는데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39]

터툴리안(Tertulian, 150-230)과 암브로스(Ambrose, 340-399)는 초신자 세례와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을 여러 책을 통해 강조했다. 히포의 감독이며 기독교 철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어거스틴(Augustinus, 354-430)도 교리문답학교에서 교사들이 사용할 지침서를 만들어 교사가 단순한 진리의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로 하여금 진리를 배우도록 하는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36] 김태원, *기독교 교육사*, 45.

[37] 김재은, "카테큐메나테 모형을 적용한 신앙공동체 성인교육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소고", *신학과세계 제35호* (1997년), 240-241.

[38]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김근수, 신청기 역, *기독교 교육사*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95), 123.

[39] 장종철, *기독교 교육 역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출판부, 1993), 184.

종교 개혁기의 새가족 교육

중세교회(6-15세기)는 회중의 교회가 아닌 사제의 교회로 전락함에 따라 초대교회가 지녔던 성도의 교제나 신앙교육을 상실해버리고 세례라는 의식만 남게 된 교육의 암흑기가 된 시기이다.[40]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루터(Martin Luther)의 종교개혁은 기독교교육에 있어서도 형식주의와 상징주의 교육의 맹목적인 교육형태를 뒤흔든 혁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루터는 부모와 어린이, 가장, 안주인과 하인, 장인과 동업자 등이 함께 하나님의 권위 하에서 둘러앉아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즉, 단편적인 지식 전달만이 아닌 교회 공동체가 공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하에서 성서와 교리문답을 실천적으로 읽고 해석한 것이다.[41]

칼빈(Calvin)은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기초 교리를 해설하였고, 「제네바 교회의 요리문답서」를 신앙생활의 지침서로 삼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답들이 발전하여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서가 만들어졌고, 이 교리문답서는 장로교회 교리의 기초가 되었다.[42] 이들 교리문답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하여 원인과 해결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설명한다. 그런 다음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인 윤리가 나옴으로 인해 단지 지식이 아닌 성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현재의 새가족 교육

종교개혁 이후의 영국 개혁교회의 경건운동은 성경을 듣고 읽으며 신조와

---

[40]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226.

[41] 송순재, "루터의 교리문답과 그 교수학적 가능성", *신학과세계 제27호* (1993), 284-285.

[42] 김재은, *교육목회* (서울: 성서연구사, 1998), 155-156.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을 가르치는 교육과 예배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후의 신앙교육은 미국으로 건너가 성경과 교리문답 중심의 교과과정이 주된 가르침의 내용이 되었고, 이것이 후일에 교육의 기초를 형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특히 미국에서의 교육은 경건주의 영향으로 기독교 경건성 안에 있는 시민을 양육하는 것으로 가정, 학교, 교회 등을 통하여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오늘날의 기독교교육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 즉 말씀을 기초로 하여 편협적이거나 지식적 전달로만 끝나면 안된다.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가족 교육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진리의 배움과 영적 훈련, 그리고 교제를 통해 소외감을 갖지 않고 한 가족이 되도록 돕는 통전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 Ⅲ 장

통전적 새가족 교육

교육에 대한 연구는 인류의 발전과 함께 계속 이어온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이다. 시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근래에 들어와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교육할 것인가?' 라는 연구보다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할 것인가?' 하는 교육방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것은 미디어와 인터넷,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개개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쌓아 두고 있느냐' 보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더 강력한 전달방법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다. 단지 구전이나 쓰여진 문자로서의 전달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예술, 심미학, 상상력, 영감, 이미지 등을 포괄하여 광범위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에 의하면 구두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7% 정도가 전달됨에 불과하며, 38%는 다른 다양한 표현방식을 통해 전달되고, 55%는 얼굴 표정과 몸의 움직임, 비언어적 표현(non-verbal expression)으로 전달된다고 했다.[1]

하지만 오늘날 가르침의 현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일반교육의 현장도 일방적인 주입식 위주의 가르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멘토나 스승의 삶으로부터 배우는 교육,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친밀한 인격 대

[1] Marshall McLuhan, *The Medium is the Massage*, 김진홍 역, *미디어는 맛사지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94.

인격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기독교교육도 마찬가지다. 교회학교 교육이나 새가족 교육도 일반교육과 같이 교리 중심 교육,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 정보 전달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교육의 현실이다. 물론 가르치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시대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교통과 정보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와 지방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 극도의 개인주의가 생김과 동시에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강화되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 사람들의 생각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사상적 변화 가운데 기독교교육은 주입식 전달만으로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하고 총체적인 통전적 교육을 구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제까지의 방법들은 어떤 시대적 상황, 상황의 변화에 따라 탈출구를 찾는 듯한 방법을 찾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방법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여러 지표를 통해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현시대, 상대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현 세대를 향해 기독교교육, 특별히 새가족 정착을 위한 교육의 변화와 방향은 진정한 통전적 가르침으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함을 제시함에 있다.

‘통전적’ 단어의 정의

‘통전적’ 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첫 번째 통전적이라는 단어를 ‘거느릴 통(統), 온전할 전(全)’ 을 쓰면 ‘전체적’ 이라는 말과 유사하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은’ 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영어로는 wholistic 혹은 holistic으로 번역할 수 있고 여러 유용한 통찰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즉 어떤 특정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성(diversity)을 인정하면서도 획일성(uniformity)을 강조하지 않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의미로서의 '통전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2]

두 번째 '통전적'이라는 단어를 '통할 통(通), 온전할 전(全)'을 쓰면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한국 사회에 가장 화두가 된 단어 중의 하나는 '통(通, Tong)'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언론매체를 비롯하여 기업과 학원에 이르기까지 '통(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친 것이다. 그만큼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서로가 온전히 통할 수 있는 '통(通)'이라는 말인 것을 증명해준다.

기독교 안에서도 통(通)박사로 알려진 조병호는 2006년 6월 하이 기쁨 교회의 주일예배를 통해 '탕(湯)과 통(通)'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고, 2006년 12월 차이나 네트워크 연구소(CNI) 1주년 기념 포럼에서 '통 Tong' 개념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3] 조병호는 '통하다'라는 말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통하는 대상이 사람과 사물, 구체적인 대상이나 추상적인 대상, 혹은 그 말의 대상이 복수도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4] 즉, '통하다'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한 대상 또는 특별한 상황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 전 문화적인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마치 수학에 있어서 공통분모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2] 김정훈,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통전적 가르침에 관한 연구,"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2005), 307.

[3] 조병호,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자료집(2007), 23.

[4]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통독원, 2007), 55-57.

조병호는 ‘통(通)’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에 있어 ‘통으로 보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떤 대상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꿰뚫어서 살피고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한다.[5] 이것은 어떤 대상을 볼 때에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거나 자신의 주관적 판단 기준으로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모든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통으로 본다’라고 할 수 있다. 조병호는 이 개념에서 더 나아가 ‘통으로 보는’것의 의미를 서양의 분석적인 사고와 동양의 전체적인 사고를 유기체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6] 서양의 사고는 어떤 대상을 인식함에 있어서 부분 부분을 중요시하고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면, 동양의 사고는 부분보다는 대상 주변의 상황까지 전체적으로 보고, 일어날 일들까지도 예측해서 포괄적인 사고를 한다. 조병호는 이러한 서양적 사고와 동양적 사고를 하나로 묶는 ‘통(通)’이란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조병호는 통(通)으로 보는 방법을 5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는 것’이다.[7] 조병호의 ‘통’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이자 전제이다. 예를 들면 보통 묵상을 하면 한 문단 또는 한 구절을 묵상하는데 이 때 전체 책의 주제나 방향,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앞뒤 문맥을 함께 보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묵상의 해석과 실천이 나올 수 있다. 즉, 전체가 가지고 있는 중심을 잃지 않은 채 부분 부분들을 보고, 또 부분 부분들을 전체로 연결하고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는 통의 방법이다. 이러한 전체와 부분을 함께 보는 것을 조병호는 ‘숲과 나무’라는 표현을

---

[5] Ibid., 62.

[6] Ibid., 55-57.

[7] Ibid., 89-99.

사용한다.[8] 전체 숲을 보고 생각하며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들을 세심하게 보는 것이고, 동시에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연결하고 이끄는 숲을 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 통으로 보는 방법은 '분리된 개체 속에 부여할 수 있는 공통 특성을 찾는 것' 이다.[9] 이 방법은 편협적인 한 방향으로나 어떤 것을 정해 놓고 짜맞춰가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개체들을 펼쳐 놓고 그 개체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을 찾아내어 전체 가운데 하나의 흐름을 부여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극단을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것' 인데,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던 모더니즘의 상황과는 달리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부인 또는 모든 것을 인정해버리는 개체들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을 유기적으로 아울러야 한다는 것이다.[10]

네 번째는 '하나의 현상에 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다.[11] 동일한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대상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러기에 어떤 한 방향에서 보고 인식한 것으로 그 대상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정확히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 편하다거나 익숙한 방법 만으로만 접근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 이라 말한다.

다섯 번째로 통으로 보는 방법은 'text와 context의 관계를 조명하는

---

[8]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29.

[9]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92.

[10] Ibid., 94-96.

[11] Ibid., 96.

것’ 이다.[12] Text 자체는 결코 변해서도 변할 수도 없지만, 이 text는 반드시 당시의 시대와 환경이라는 context 안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당시의 상황, 문화, 환경, 시대 등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text와 context를 이용해 대상이나 현상들을 이해해야 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를 종합해볼 때 결국 조병호가 말하고 있는 ‘통(通)’ 이라는 것은 ‘21세기에 필요한 총체적 삶의 방식으로 제시’[13]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통전적 새가족 교육의 정의와 범위

본 연구에서 ‘통전적’ 이라는 단어를 조병호의 ‘통(通, Tong)’ 의 정의로 한정 지었을 때, 통전적 교육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전적 교육은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철학적 토대 위에 세운 가르침이다.[14] 철학이라는 것은 사고와 실천을 이끄는 보편적인 개념들이다. 단순히 인식론적, 형이상학적인 틀 만을 제시함으로써 내적인 이데아의 세계만을 펼치는 것은 균형 잡힌 철학이 아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론(Theory)과 실제(Practice)가 균형 잡히고 조화롭게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면 통전적 교육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칸트(Immanuel Kant)가 말한 것처럼 이론 없는 실제로는 문제에 대답하는 것이 모호해질 수 밖에 없고, 또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다.[15]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

[12] Ibid., 98-99.

[13] Ibid., 142.

[14] 김정훈,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통전적 가르침에 관한 연구,” 307.

[15] Michael L. Peterson, *Philosophy of Education: Issues and Options*, 김도일 역, *기독교교육을 위한 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15.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적 통전적 교육이라 함은 시대적, 사상적 특성을 잘 파악한 균형 잡힌 철학적 바탕이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6]

두 번째로 통전적 교육은 올바른 신학사상에 토대를 둔 가르침이어야 한다.[17] 우리는 복음주의, 자유주의, 신 정통주의 등의 많은 신학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 복음주의는 성경과 하나님의 계시, 회심을 중요시하고 설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중심으로 한다. 하지만 복음주의는 교리적 가르침을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사회과학적 가르침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주의 신학은 사회과학 이론을 교육에 도입하여 학습자 중심의 가르침을 중요시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바꾸고 회심보다는 심리적인 발달에 더 관심이 치우쳐져 있다. 신 정통주의 신학은 복음주의의 가르침과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세상의 문화와 철학에 맞서 인간의 자율성보다는 죄에 더 초점을 맞추기에 세상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신학사상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통전적 교육은 당시의 시대적 흐름과 분위기를 고려해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간이 가진 자율성과 죄성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떤 하나의 사상이나 신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통전적 교육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기존의 교육들은 대부분 가르치는 교사 중심적인 가르침이었다. 지적, 지식적 수준, 가르침에 대한 커리큘럼, 교수법과 교사의 태도, 기자재의 활용 등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하지만 2장에서 다루었던 제임스

---

[16] 김정훈,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통전적 가르침에 관한 연구," 309.

[17] Ibid., 310.

파울러(James W. Fowler)의 성장발달단계를 살펴보았듯이 통전적 교육은 단지 가르치는 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를 향한 이해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높은 지적 자산과 잘 짜인 커리큘럼, 그리고 훌륭한 교수법과 태도, 효과적인 기자재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배우는 자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 모든 교육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전적 교육은 배우는 자의 상태, 상황, 환경, 수준, 방해하는 요소의 발견 등을 통해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와 필요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통전적 교육이다.

네 번째로 통전적 교육은 학습자가 배운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또다시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교육이다. 한 가정 안에서 자녀는 지식이든 언어든, 생활 습관이나 양식이든 그 부모의 삶의 영향을 받고 자란다. 그리고 그 자녀가 크게 되면 부모의 삶을 존경하든 싫어하든 그 부모의 삶의 모습을 많은 부분을 따라 살게 된다. 기독교의 통전적 교육은 상호 인격적인 삶의 관계로써 상호작용을 하게 되기에,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가 되고, 또한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로 서게 되는 교육이다.

다섯 번째로 통전적 교육은 신학적 지식이나 정보전달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관계가 살아있는 공동체적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18] 관계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단지 지식전달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일 대 일의 관계만을 고수하고 있으면 폐쇄적인 관계가 되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통전적 교육은 관계를 전제로 하여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교육이다.

통전적 교육은 어떤 한 단어,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 될 수 없다. 그만큼

---

[18] Leonard Sweet, *Postmodern Pilgrim: To Guide the Future Church into the 21st Century*, 김영래 역,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서울: 좋은씨앗, 2004), 12.

포괄적이고 전체적이며 포용적이고 유기적이다. 그렇다고 어떤 목표나 방향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21세기의 포스트모던 시대에 오히려 통전적 교육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마치 그렌츠(Granz)가 언급한 것처럼 탈-개인주의적 복음, 탈-이원론적 복음, 탈-합리주의적 복음, 탈-지식중심적인 복음과 같은 개념이다.[19] 위에서 언급했던 조병호의 '통(通)을 보' 는 방법이 바로 통전적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전적 교육의 범위 안에서 통전적 새가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까지의 대부분의 교회의 새가족 교육은 교회의 여건, 사정, 중복된 사역 속에 새가족 교육은 그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단순히 시간만 보내고 거쳐가는 과정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목회자나 기존의 성도들은 새가족 교육이 끝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리라는 착각, 그리고 새가족 교육은 새가족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 하지만 새가족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교육 전달, 정보 전달의 범주에만 넣어서는 안되며, 새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부담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공동체로의 역할까지 새가족을 향한 배려와 섬김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새가족은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이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교회라는 신앙공동체와 그에 맞는 교회 생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생활

새가족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실질적인 도움은 교회 생활이다. 같은

---

[19] Stanley J. Granz, *A Primer on Postmodernism*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6), 167-174.

교단이라도 예배 순서가 다르고, 기도의 형태가 다르고, 설교의 스타일이 다르다. 하물며 초신자들에게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진다. 하물며 성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은혜' 라는 단어조차 초신자들에게는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며 이질감을 느낀다. "새신자들이 왜 예배 생활이나, 헌금이나 교회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가를 물었더니, 69퍼센트가 그렇게 하라고 교회의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보았다." [20]

그렇기에 새가족 교육과정에 반드시 교회 생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는 언제 드리는지, 예배 순서에 대한 설명, 기도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기도하는지, 교회 봉사의 목적과 종류들, 십일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한 의미와 내는 방법 등을 세세하게 알려줘야 한다. 기신자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교회마다 다른 문화가 있기에 초신자와 같이 자세한 설명들이 필요하다.

코이노니아의 장

존 웨스터호프(John H. Westerhoff)는 "기독교교육은 개인들이 그룹들을 기독교적 삶의 스타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신앙공동체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노력" [21]이라고 했다. 즉, 기독교교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처럼 학교나 강의실에 수십 명이 앉아서 한 명의 교사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속한 신앙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인데, 바꾸어 말하면 기독교교육을 함에 있어서 신앙공동체가 없다면 신앙 안에서 사람들이

---

[20] 윤영민, "새신자 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신학지남* (2014. 9), 298.

[21] Westerhoff, *A Colloquy on Christian Education*, 63.

성장하고 양육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 공동체, 코이노니아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이다(엡 5:23; 골 1:18,24). 그렇기에 교회라는 신앙공동체와 교제하고 삶을 나눔으로 기독교 신앙을 경험하게 되고 이해하는 것은 신앙공동체에 참여 함으로서 가능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아래 인간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을 친교로서 증언하도록 소명을 받았다. 이것은 교회라는 신앙공동체가 철저하게 친교라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 즉 억압받는 자, 상처 입은 자, 가난한 자, 가지지 못한 자 등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로 존재하고, 그들을 위해 행동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공동체임을 의미한다.[22] 그래서 존 웨스터호프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가족과 같은 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3]

이러한 의미에서 새가족 교육은 어떤 기술이나 정보 전달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새가족의 어려운 점, 힘든 점,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듣고 그들이 그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목회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수동적인 태도로 새가족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미 겪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새가족들과 나누고, 그들도 그러한 삶의 증언을 통해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신앙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새가족은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온 한 가족의 일원으로 봐야 하고, 교회는 그들을 가족 구성원으로서 신앙양육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지적인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관심과 사랑, 배려와 교제를 통한

---

[22] John H. Westerhoff,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정웅섭 역, *교회의 신앙교육* (서울: 기독교교육협회, 1983), 85.

[23] John H. Westerhoff, *Living the Faith Community* (New York: The Seabury Press, 2004), 19-26.

통전적인 새가족 교육의 목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화와 종교사회화로서의 공동체 교육

존 웨스터호프는 과거 새가족 교육이나 신앙공동체를 향한 교육이 지나치게 "학교형 교육의 범례"(schooling-instruction paradigm)의 이해로만 치우쳐져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앙공동체 문화화 패러다임"(community of faith-culturation paradigm)을 회복해야 한다고 한다.[24] 문화화라는 말은 어떤 한 특정계층이나 특정한 사람들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연령층을 향한, 그리고 한 공동체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통할 가치와 세계관을 말한다. 특히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삶의 방식들 만을 지키려고 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공유하고 전하고 상호적 경험을 통해 자신을 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신앙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회복하고 격려함으로써 서로 상호적 경험을 가지는 공동체이다.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 삶의 스타일을 공유하고 변화하는데 의식(ritual), 제의(rites), 신조(beliefs), 태도, 조직적인 양식, 역사, 전통을 통해 공식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생활에 참여한다.

그런데 존 웨스터호프는 교육적 자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더 이상 학교형 교육이라든지 정보전달의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문화화와 사회화를 위해서 교육의 내용(content)보다 과정(process)를 중요시 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는 "그 동안

---

[24] Westerhoff,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77.

기독교교육이 내용과 지식 그리고 지적인 기능주의에 치중한 것을 지적하며 실제로 기독교적인 삶의 스타일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이 실행된다면 내용보다 과정에 치중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25]

신앙공동체의 문화화와 사회화는 단지 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교육되고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여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어린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삶의 경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새가족 교육이라는 것은 등록한 새가족이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인격적인 관심과 새가족이 속한 신앙공동체의 문화와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통전적인 문화화 사역, 사회화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자의 삶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 교회의 교육시간은 저마다 다 다르다.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에서 발간된 새신자 양육교재(만나서 반갑습니다.)는 6과로 구성되어 있고, 총회국내선교부에서 발간된 새가족 교재는 5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에서 발간된 새가족 교재(거듭난 사람들: 새신자가 믿어야 할 12가지)는 무려 12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몇 번을 모이든, 몇 시간의 교육을 하든 대부분의 교육은 강의식 교육이다. 목회자이든 훈련 받은 성도이든 한 명의 교육하는 사람이 있고, 새가족은 그 교육을 듣는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마치게 되면 수료식을 하고, 소그룹(목장, 구역 등으로 불리는 소그룹 신앙공동체)으로 가게 된다. 문제는 이 시간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새가족 교육기간 동안은 새가족 사역팀에서 연락을 하기도하고 챙겨 주기도 하고 심지어

[25] Westerhoff, *A Colloquy on Christian Education*, 69.

새가족을 위한 특별한 식사와 공간이 따로 있어서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실제로 감동도 받지만, 그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내팽겨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새신자가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 안에 6명 이상을 알게 될 때 정착의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26] 즉 바꾸어 말하면 교회와 기존 성도는 새가족 교육을 하고 나면 스스로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을 기대하지만, 새가족이 교회도 은혜롭고, 설교도 유익하지만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교제하고 정착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6명의 사람을 못 만난다는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도 단지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교회를 떠나버린다.

그렇기에 통전적인 새가족 교육은 새가족이 등록하고 교육을 끝나고 난 후의 시간까지, 나아가서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하고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까지의 충분한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회의 여건, 인력과 장소의 부족, 재정과 시간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함께 새가족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여긴다면 새가족 한 명 한 명을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신앙 안에서 정착하고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적 부모와 자녀

쿠네(Gary W. Kuhne)가 이야기 한 것처럼 성경은 새가족을 영적인 어린아이로 말하고 있다(요 3:3; 고전 3:1; 벧전 2:2; 요일 2:12-14).[27]

---

[26] 윤영민, "새신자 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300.

[27] Kuhne, *The Dynamics of Personal Fellow-Up*, 20.

또한 ‘자녀’ (갈 4:19; 살전 2:11)라고 불렀다. 이러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새가족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부모의 심정으로 대하여야 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살전 2:7),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살전 2:11-12)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자녀를 향한 부모는 반드시 사랑과 희생이 요구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 15:12),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일 3:16)의 말씀과 같이 영적인 아이인 새가족을 향한 부모인 교회는 그들을 향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사랑과 희생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새가족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장성하여 또 다른 영적인 아이의 영적 부모와 같이 설 수 있어 교회가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 성장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벧전 2:2)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가르쳐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영적 아이들은 그 영적인 음식을 섭취하고 스스로 말씀을 보고 읽고 실천하고, 나아가서 그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도록 해야 한다.[28]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엡 4:13; 골 1:28).

교회성장

새가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기억하며 따르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된다(행 1:8; 마 28:19-20). 이것은 더 이상 자기 혼자 복음을 알고 경험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내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삶이다. 그리하여 전도의 범위가 점점 커지며 또 다른 새가족들을 데려와서 결국 교회의 번식, 즉 교회성장에 기여하게 된다.[29]

구원의 확신

게리 쿠네(Gary W. Kuhne)는 새가족이 회개를 통해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 구원의 믿음은 지, 정, 의로서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한다.[30] 이것은 토마스 그룸(Thomas H. Groom)도 기독교 신앙의 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과 일치하는데, 세 차원이란 인식적인 차원으로서 지적으로 믿는 것으로서의 신앙(Faith as believing), 감정적인 차원인 정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서의

---

[28] Waylon B. More, *New Testament Follow-Up*, 정학봉 역,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서울: 요단출판사, 1978), 30.

[29] Ibid., 24.

[30] Kuhne, *Dynamics of Personal Follow-Up*, *개인적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122.

신앙(Faith as trusting), 그리고 행위적인 차원인 행하는 것으로서의 신앙(Faith as doing)을 말하고 있다.[31] 지적으로 믿는 것으로의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의 요소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식하고 믿는 것을 말한다. 즉, 지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구원의 사실을 믿는 것이다.

정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서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돌이키고자 하는 데까지 이르는 진리를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심정적 반성과 회개의 과정을 거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행하는 것으로서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이제 과거의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는 것이다.

즉 통전적인 새가족 교육에 있어서 신학적 바탕의 가장 핵심은 새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분 뿐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죄를 죄로 깨달으며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켜 이전과는 다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살아가는 것, 나아가서 그것은 죄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것에 있다.

신앙고백

존 웨스터호프(John H. Westerhoff)는 신앙공동체의 최종의 신앙발달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체험된 신앙(experienced faith), 귀속적 신앙(attiliative faith), 탐구적 신앙(searching faith), 그리고 고백적(성숙한)

---

[31] Groom,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96.

신앙(owned faith)가 그것이다.[32]

첫 번째로 체험된 신앙(experienced faith)은 새가족이 처음부터 신학적 이론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다.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의 행동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사랑을 주기 때문에 따라 하고 모방하는 것처럼, 새가족들에게 있어서 처음의 단계는 반드시 신뢰와 사랑, 용납함을 체험케 해주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두 번째로 귀속적 신앙(attiliative faith)은 새가족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줌과 동시에 그 공동체가 교제와 삶의 공유를 통해 나누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증언들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청소년기에 자기를 받아들여주는 집단 가운데 주체의식을 가지기는 하지만 타인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새가족에게 있어서 새가족이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중요하고, 이 공동체의 신앙성숙도가 새가족의 신앙성숙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 탐구적 신앙(searching faith)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삶에 대해 대치되고, 때로는 신앙공동체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의심과 비판적 생각들을 지적인 것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마치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과 비슷하듯이 이들을 위해서 지적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함께 신앙공동체 안에 계속 머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네 번째로 고백적(성숙한) 신앙(owned faith)이라는 것은 새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감정, 의지 즉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포함한 성숙한 신앙을 말한다. 이것은 어떤 새가족에게는 극적인 변화로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새가족에게는 오랜

---

[32] Westerhoff,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85.

시간 서서히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새가족을 향해서는 신앙공동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환경과 경험의 나눔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새가족은 계속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그 새가족 만이 소유하는 신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통전적 새가족 교육의 목적은 새가족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교회를 포함한 특별한 장소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배를 포함한 특정한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thinking), 느끼고(feeling), 의지하고(willing), 행동하는(acting) 전인적인 인간행위의 모습을 의미한다.[33] 그래서 먼저 교회와 신앙공동체는 이들의 신앙을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훈련장이 되어 주어야 한다. 교회와 완전한 사회는 아니지만 교회는 그 안에서 새가족들이 그들의 신앙의 의미를 찾으며 정의와 사랑의 요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34]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고 경험될 때 새가족은 성장하고 성숙되어 신앙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또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예배, 선교, 친교, 봉사, 교육 등의 섬김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에 기초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새가족의 매일의 삶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35] 단지 교회 안에서만의 삶이 아닌 사회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제자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통전적 새가족 교육의 신학적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

[33] Westerhoff, *A Collopuy on Christian Education*, 68-70.

[34] Ibid., 87.

[35] 고용수, "한국교회 성인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와신학 48호* (1993년 6월호), 306-307.

제 Ⅳ 장

한국교회와 새가족 교육

오늘날 한국교회의 새가족 교육을 살펴보면 70년대 이후 놀라운 양적 성장을 해온 것에 비해 현재 많은 문제들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초기 한국교회는 적어도 사회개혁과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살아있는 신앙공동체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한국교회는 새가족 교육의 당위성 결여, 교회의 익명화와 대형화, 구원에 대한 확신의 부재, 신앙인의 삶의 이중성 등이 나타남에 따라 기독교의 교육행위들은 분산된 프로그램으로만 산재했지, 전체 교회와 회중의 참여에 의한 것이 되지 못했다. 또한 교회는 기구 유지나 타계적 신앙 또는 교육적인 배려가 없는 예배에만 치중해버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1] 포스트모더니즘의 팽배, 이단의 증가, 미디어의 발달 등 외부적인 요인들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한국교회의 내부에 있지 않는지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새가족 교육의 당위성 결여

> 교회에서 새신자 반을 운영하는 교회가 134교회 중 52개 교회로 38퍼센트 정도에 머문다. 이는 대부분의 교회는 새신자가 예배만 드리는 참석자가 아니라 교회에 더욱 더 헌신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의도적인 교육을

[1] 은준관, "선교 2세기를 향한 한국교회 교육의 과제," *기독교사상 제325권* (1985.7), 19.

실제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2]

이렇듯 많은 교회가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하면 반겨주기는 하지만 그들이 계속 신앙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데까지 보살펴야 하는 당위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새가족 교육장소의 부재,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의 부재, 재정적, 시간적 여유의 부족, 다른 사역들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등의 이유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전도와 제자사역이라고 한다면 새가족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사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익명화

"오래 전부터 교회는 냉담자 증가에 대해 교회의 중산층화와 대형화로 말미암은 '익명화' 를 들고 있다. 교회의 중산층화는 가난한 신자들의 소외감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가난한 신자들이 신앙을 등지게 한다." [3] 세상의 물질주의 가치관이 한국교회 안에서 팽배해짐에 따라 '축복=부자'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은 소외감과 함께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된 것이다.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중산층의 위치에 그대로 있고, 사회에서 가난한 소외계층은 교회에서조차 소외되고 거절감을 느끼면서 그들의 신앙도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점점 떠나게 된 것이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전체뿐만이 아니라 새가족을 향한 시선과 태도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

[2] 윤영민, "새신자 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293.

[3] 추교윤, "[읽은 양 찾기]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 *사목정보* (2008), 16.

새가족의 신상카드를 적으면서부터 새가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소외감과 눈치를 보며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의 대형화

추교윤은 "본당의 대형화는 목자와의 인격적 만남과 신자 상호 간의 연대감, 소속의식을 약화하여 교회와 멀어지게 한다." [4]고 했다. 사실 교회가 점점 대형화 되면서 교회는 한 명의 목회자가 맡아야 할 성도가 많아지게 되고, 소그룹도 커지면서 성도 상호 간의 연대감이나 소속감 등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만남이 계속 되어 지게 만들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했지만, 교회는 점점 기업화되고 조직이 조직을 이끄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는 신앙의 고백과 간증, 말씀의 연구가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간의 교제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교회의 대형화는 점점 성도간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 뿐이었다.

새가족이 등록하고 이들을 교육하는 기간 중에도 이 현상은 그대로 나타난다. 새가족들에게 온전히 신경 써야 하는 목회자도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역과의 중첩됨으로 인해 시간에 쫓기는 모습을 보인다. 새가족 공동체의 리더와 봉사하는 사람들도 다른 많은 사역들도 인해 분주한 모습이 새가족들의 눈에 비춰진다.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사랑 받아야 할 새가족들은 분주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소외감과 거절감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4] Ibid.

구원에 대한 확신의 부재

>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唯一性)과 그분께 대한 굳은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다른 종교와 차별성(差別性)을 갖는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보다 분명한 확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새가족 교육은 5주의 교육으로 끝낸다. 그 교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교회에 처음 믿은 초신자나 다른 교회에서 온 기신자나 동일하다. 그 교육마저도 30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새가족 교육은 형식적일 수 밖에 없고, 교육자가 설득할 충분한 시간도, 새가족이 이해할 충분한 여건도 마련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새가족은 오늘날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다원주의적인 분위기 안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교회에 왜 나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다. 또는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도 세상이 말하는 진리 중의 하나와 같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단지 듣기에 좋은 말이고, 좋은 내용 중의 하나라고 인식해 버린다.

신앙인의 삶의 이중성

"교회 생활에서 오는 회의(懷疑)와 갈등도 냉담자가 증가하는 요인이다. 신앙인이 보여주는 모범적이지 못한 삶에 대한 회의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된다." [5] 새가족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교회의 신앙인들은 무엇인가 다를 것이란 기대감이다. 하지만 막상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신앙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5] Ibid., 17.

실망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비 신앙인의 삶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서 오는 실망감이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상처들, 개인의 경험과 신앙의 경력, 직분의 차이에서 오는 권력 다툼과 권위의식, 설교의 내용이나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의 모습들, 복음적인 내용이나 겸손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목소리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자기주장들을 보면서 새가족들은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제 V 장

선창교회, 장유대성교회 새가족 사역 프로젝트 실행

본 5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대전에 소재한 선창교회와 김해시에 위치한 장유대성교회의 새가족 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해 보려고 한다.

선창교회 새가족 사역 프로젝트

선창교회는 대전시 서구 용문동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교회로 1959년에 개척하여 현재 1300명정도 출석하는 교회이다.

교회의 상황

선창교회가 있는 위치는 대전지역에서도 지역적으로 정체되어있는 옛날 지역이고 유동인구가 거의 없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이라는 이단의 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곳에 선창교회가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에 새가족이 등록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스스로 등록한 새가족의 경우에는 이단에서 온 사람인지의 검증과정 또한 필요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등록하는 새가족이 이단에서 온 사람인지의 검증과정을 거침과 동시에 올바른 신앙 안에서 말씀과 교리에 굳건히 서고, 보호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줄 신앙공동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선창교회의 장년 소그룹은 크게 3개의 교구(4교구: 청년, 5교구: 교회학교)와 3~5가정으로 이루어진 목장(구역)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목자(구역장)들이 목장모임을 인도하지만, 교회의 여러 여건상 목자가 따로 모여 교육받거나 목장모임들에 대한 나눔과 피드백이 없었다. 그렇기에 어떤 목장은 잘 모이는 목장이 있는가 하는 반면 어떤 목장은 모임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목장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목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가족 교육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교회 전체에 적용시키고 실행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교구(6교구)를 새롭게 만들게 되었다.

프로젝트 실행

기존의 새가족 교육은 5주동안의 교리전달을 위한 10분정도의 교육이었다. 하지만 말로만 전달되는 교리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특히 자녀들이 어린 경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기존의 교리교육을 짧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새가족 담당목회자가 말로만 설명했던 전달했던 교육 대신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에서 만든 '새가족용 동영상'을 활용하여 전달하기로 했다. 이 동영상은 총 12개의 동영상(교리용 -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장로교란 무엇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새가족용 -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10가지를 선택하여 한 주에 2개씩 간단한 멘트와 함께 교육했다(1주차 – 나는 누구인가,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 2주차 - 성령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 3주차 -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 4주차 -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장로교란 무엇인가 / 5주차 -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새가족 교육 장소는 4층 건물 중 1층 안쪽에 위치해 있다. 교회에 있는 장소들 중 가장 접근하기 좋고, 인테리어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계절마다 약간의 변화를 통해 자칫 어색하고 어려운 마음을 풀어주고자 한다. 또한 새가족을 위한 식사가 따로 제공된다. 기존에 해왔던 방법이지만 매주 새가족을 위한 특별한 식사들이 제공되어 새가족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식사 테이블마다 ‘테이블 섬김이’가 배치가 된다. 이들의 역할은 새로 온 새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가족의 친구가 되어주고, 새가족 교육 기간 동안 안내역할을 하게 된다. 5주 동안 같이 이야기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 신앙적, 정서적 어려움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테이블 섬김이와 담당교역자가 함께 찾게 된다.

5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면 6교구 안에 있는 정착목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새가족들이 모이기 편한 시간을 미리 물어봐서 정착목장의 목자와 함께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교재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유기성, 넥서스cross)이다. 여기서 새가족이 초신자이냐 기신자이냐에 따라 목장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는 교육기간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초신자를 위한 정착목장의 교육기간은 6개월간으로서, 이 기간 동안 새가족은 신앙의 기초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실습을 해본다. 그리고 선창교회가

가진 문화들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고 적응해가는 시간을 가진다.

기신자를 위한 정착목장의 교육기간은 3개월간으로서, 이 시간 동안 기신자 새가족은 신앙의 점검과 함께 더 깊은 신앙의 도전을 주어, 새가족 자신의 삶 가운데 실습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초신자와 마찬가지로 이전 교회와는 다른 선창교회의 문화들에 대해 적응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3개월과 6개월의 정착기간이 지나면 비로소 6교구의 목장으로 편성되게 되는데, 6교구 안에 있는 여러 목장 중에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목장을 선택하게 한다. 목장에서 목자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의 목장 모임을 통해 6교구 목장으로 들어온 새가족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여 자기만의 신앙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나아가서 각자의 은사들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새가족을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1년에 2회로 그 동안 등록한 새가족을 초청하는 새가족 초청잔치 시간을 가진다. 그 시간을 통해 새가족이 교회 안에서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느끼게 하고 교제를 나눈다. 교회에 등록하며 목장모임을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는 시간과 교역자소개와 더불어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역을 소개 함으로서 그들도 교회의 섬김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6교구 목자는 주일 새가족 모임이 끝나는 시간이 함께 모여 목장모임에서 새가족들의 상황들을 담당 목회자에게 보고한다. 특이한 상황이나 건강의 변화, 자녀의 어려움까지 보고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1년에 2차례의 목자세미나를 자체적으로 가져 새가족을 섬기는데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점을 찾으며, 책(예수처럼 섬겨라)을 읽고 책을 통해 깨달은 점을 나눔으로 새가족을 향한 실제적인 경험들을 나누고 새가족을 위한 기도회를 가진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존의 새가족 교육과정에 접목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 다음과 같은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다.

[새가족부 사역 매뉴얼]
목표: 새가족을 관계와 섬김을 통해 복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섬기고 헌신하는 행복한 선창교회 교인이 되게 한다.

1. 새가족부 섬김이들이 지켜야 할 사항
1) 모든 섬김이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2)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
3) 복장을 항상 단정하게 한다.
4) 항상 밝고 웃는 모습을 유지한다.
5) 진정으로 환영하는 따뜻한 태도를 보인다.
6) 새가족부 교육 시간에는 출입문 출입을 삼간다.
7) 서빙 섬김이(식사 및 간식 섬김이)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앞치마를 반드시 착용한다.
8) 섬김이의 가족이나 새가족의 면담이 필요할 경우는 새가족부 실을 나가서 만난다.
9) 섬김이는 섬기는 모든 시간 동안 새가족에 집중하고 식사, 간식, 차 등은 삼간다.
10) 섬김이는 섬기는 모든 시간 동안 각자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11) 입구바닥 및 입구 창문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청소하고 체크한다.
12) 맡은 새가족이 없는 테이블 섬김이들은 한 테이블에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고 목장에 대한 노하우를 나눈다.

2. 테이블 섬김이
1) 테이블 섬김이
(1) 테이블 섬김이는 예루살렘교회의 바나바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①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다.
②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③ 바나바는 중보자이다.
④ 바나바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⑤ 바나바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⑥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다.
⑦ 바나바는 동역하는 사람이다.
(2) 테이블 섬김이는 새가족과 유무와 관계없이 새가족부 실에 있어야 한다.
(3) 테이블 섬김이는 새가족부 실로 들어와 새가족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테이블 섬김이는 밝고 따뜻한 표정을 지어야 한다. 새가족은 긴장을 하며 주위의 사람들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 테이블 섬김이는 새가족과의 첫 만남이 새가족부 실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의 표정과 말은 온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된다. 새가족이 좋은 인상을 갖도록 섬김이는 노력하여야 한다.

(6) 테이블 섬김이는 새가족과의 만남에서 새가족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살피며 관심 있는 부분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있을 경우 자녀와 관계된 교회의 활동 등을 소개하며 관심을 갖고 대화하도록 한다. 대화의 기술은 자기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묻는 질문 방법은 좋은 대화가 아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관심 갖는 부분을 관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새가족이 교회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을 물을 때는 자녀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녀 교육에 대한 안내와 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다.

(7) 테이블 섬김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빠질 때는 반드시 새가족 팀장에게 미리 말해주어야 한다.

2) 함께 식사

테이블 섬김이는 새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담임목사님의 설교나 새가족 교육 주제를 놓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이때의 대화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권한다.

오늘 교육에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먼저 말하라. 자신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은혜 받은 것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간증하는 것도 좋다. 교회와 교인들의 자랑거리를 말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관계된 교회 활동을 말하라. 가족들과 관심 있는 듯한(관계된) 교회 활동과 기관을 칭찬하며 자랑하라.

3) 교육내용 숙지

5주 동안 새가족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를 통해 10분정도 교육을 받는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테이블 섬김이와 목자는 강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하는 교육(동영상) 내용을 새가족이 궁금해서 물어 볼 때 답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다음 주에 알려준다고 하거나 담당교역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거짓을 말하거나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새가족은 금새 눈치를 채고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4) 2~5주차 새가족 섬김

(1) 새가족부 실 입구에서 따뜻하고 반갑게 인사한다.

(2) 오늘 예배시간에 받은 은혜를 먼저 말한다. 섬김이만 일방적으로

말하기보다 새가족도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3)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하여 나눈다. 이때 새가족이 좋은 일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수긍하며 함께 기뻐해야 한다. 만일 새가족이 안 좋은 일을 말할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신호라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용기를 갖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계속 기도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며 격려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가족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밀을 원할 때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비밀을 말하고 그 이야기가 새가족 귀에 들어가면 새가족은 신뢰를 잃고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4) 다른 가족과 함께 있을 경우(자녀 또는 다른 가족이 함께 왔을 경우) 그들의 안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교회에 같이 계속 출석하였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말한다. 교회에 같이 오지 못하였으면 다음 주일에는 같이 올 것을 권하며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5) 새가족 사역 후

(1) 새가족과 헤어진 후, 새가족이 떠나서 보이지 않을 때 오늘의 사역에 대하여 잠시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린다.

(2) 새가족과 나눈 대화를 간략히 새가족 섬김이 모임에서 담당교역자에게 나눈다.

(3) 집으로 돌아가서도 새가족을 위해 잠시 기도한다. 오늘의 사역에 대해 감사기도와 새가족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한다. 새가족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교회에 정착하도록 기도한다.

3. 목장과 목자, 섬김의 자리 소개

1) 테이블 섬김이가 새가족과 3-4주째 만났을 때 우리교회에 있는 목장(정착목장, 6교구)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 때 목장의 중요성, 필요성, 목장 활동의 은혜로운 것임을 말해 주어야 한다.

2) 담당교역자는 새가족이 속할 정착목장의 목자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이때 목자는 자기 목장에 편성된 새가족이 누구인지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3) 정착목장으로 편성되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교재로 목장모임을 시작한다. 성경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주님을 영접하며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진도 나가는 것을 절대 목표로 삼으시면 안 된다. 기신자라 할지라도 신앙의 기초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도를 체크 해야 하고 그들이 참된 신앙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리고 정착목장이 끝나기 전에는 봉사나 여전도회, 남 선교회도 참여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봉사나 기관의 모습 속에서 관계나 서로의 신뢰가 깨지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새가족 환영팀

1) 예배시간 30분전에 미리 와서 준비한다.

2) 새가족부 실에서 팻말(새가족석)과 명찰을 미리 배치해 놓는다.

3) 각자의 위치에서 새가족을 환영하며 밖에서 안내하는 봉사자는 환영카드와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흰색환영카드는 본당에, 하늘색 환영카드는 방송실로 보낸다.

4) 그 주 새가족 등록시 입구 안내자는 정문입구의 봉사자에게 새가족을 소개하고 인계한다.

5) 입구의 봉사자는 새가족 자리를 봉사자에게 인계하고 새가족 봉사자는 새가족과 함께 예배 드린다. 새가족에게 주보와 성경책을 권해 드린다.

6) 예배가 끝나면 새가족부 실로 모시고 온다.

7) 팻말과 명찰을 챙겨서 새가족부 실로 원위치 시켜 놓는다.

5. 영접팀

1) 2부 예배 전까지 테이블보, 의자 커버를 씌우고 테이블 셋팅을 마친다.

2) 준비하고 복장점검하고 정해진 위치에서 새가족을 영접할 준비를 한다(기도로 시작).

3) 서빙 담당자는 새가족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즉시 도와준다.

6. 자료팀

1) 등록한 새가족 사진을 찍고 컴퓨터에 저장시킨다. 등록한 새가족 신상카드 5장 인쇄하여 교역자(2장), 사역팀장, 입구 안내자, 테이블 섬김이에게 나누어준다.

2) 새가족 사진을 새가족부 실 입구 알림판에 올린다. 매주 빠진 사진이 없는지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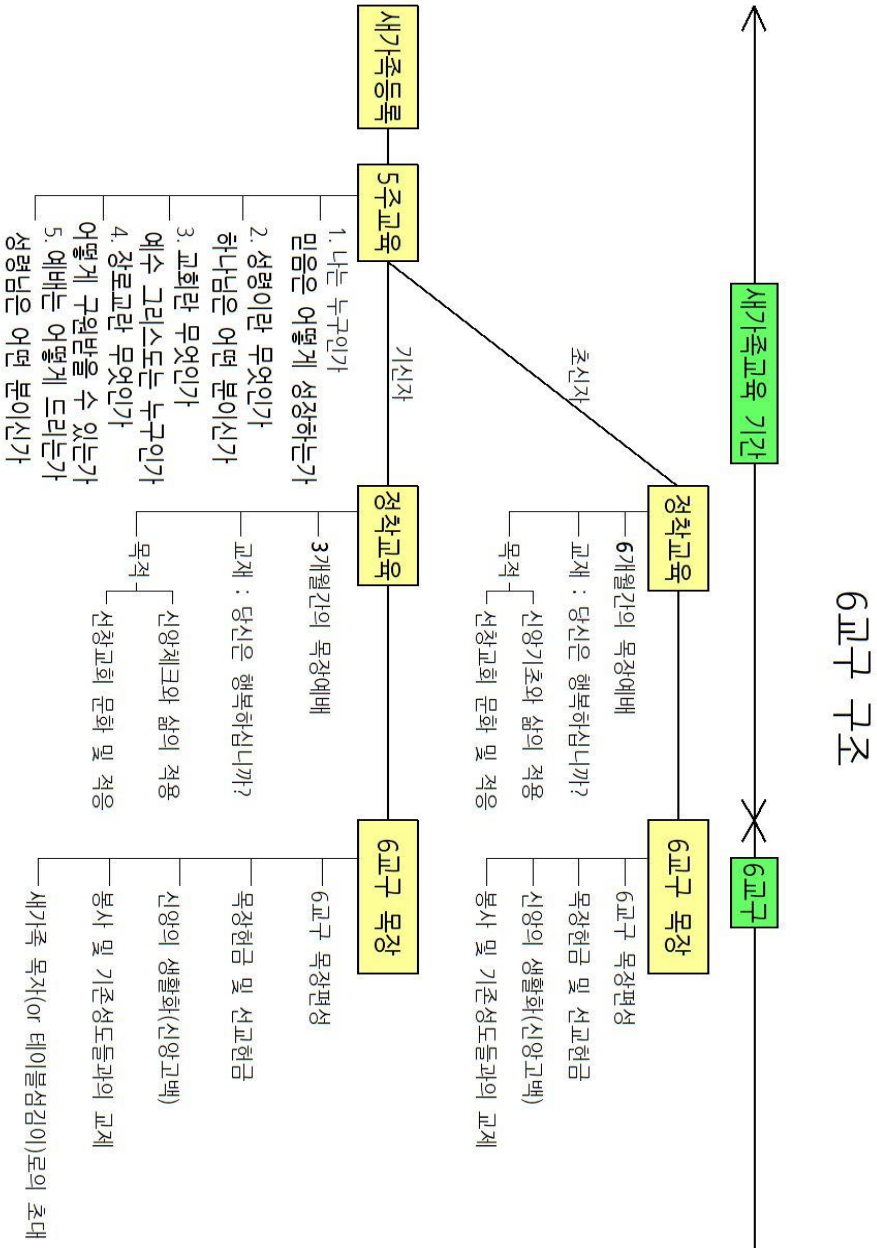
7. 새가족 사역팀장

1) 사역팀장은 새가족 선물을 준비한다. 1주 등록 선물(접시)과 5주 수료 선물(당신은 행복하십니까)을 준비한다.

2) 세례신청은 새가족 5주를 수료한 후에 신청을 받는다. 평생에 한번 받는 세례신청을 강요할 필요는 없으며, 새가족 본인이 신중히 생각해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역팀장은 미리 세례 여부를 확인하여 정착목장 목자에게 인도할 때 안내한다.

3) 사역팀장의 역할은 새가족부 전체 섬김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이 가장 주된 역할이다.

<표1> 6교구 구조


6교구 구조
새가족교육 기간
6교구
초신자
기신자
정착교육
6교구 목장
6개월간의 목장예배
교재 :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목적
신앙기초와 삶의 적용
선창교회 문화 및 적응
6교구 목장편성
목장헌금 및 선교헌금
신앙의 생활화(신앙고백)
봉사 및 기존성도들과의 교제
새가족등록
5주교육
1. 나는 누구인가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2. 성령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4. 장로교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5.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착교육
6교구 목장
3개월간의 목장예배
교재 :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목적
신앙체크와 삶의 적용
선창교회 문화 및 적응
6교구 목장편성
목장헌금 및 선교헌금
신앙의 생활화(신앙고백)
봉사 및 기존성도들과의 교제
새가족 목자(or 테이블섬김이)로의 초대

프로젝트 실행 후 분석과 결과

필자는 선창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맡기 전에는 주로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주로 하였기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 새가족부의 상황들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다. 새가족이 한 주 교회에 와서 자의로든 타의로든 등록을 하고 그 다음주부터는 오지 않는 새가족이 80%이상 되는 현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새가족들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들을 위한 사역이 잘 정착되고, 나아가서 이러한 새가족들만 잘 정착시키더라도 교회의 부흥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이러한 관심과 담임목사의 지도와 조언, 그리고 맡고 있던 새가족부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었고 실제 정착 확률이 눈에 띄게 올라가게 되었다. 새가족 교구(6교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새가족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많은 새가족들이 정착하게 되었다.

1년동안 선창교회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방문했던 사람은 106명으로 장년 79명(20-30대: 36명, 40-50대: 31명, 60대 이후: 12명)과 청년27명이다. 청년은 새가족 실에서의 새가족 교육까지는 같이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청년부에서 맡아서 관리하기에 제외하기로 한다. 그래서 새가족으로 등록한 장년 79명중 65명이 정착하여 82% 정착율(5명이 교육 중이기에 이들이 모두 5주를 수료하고 정착하면 정착율은 89%)을 보이게 되었다. 등록하였지만 나오지 않은 새가족들 중 4명은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전출하고, 2명은 이사, 나머지 3명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이전의 새가족 정착율에 대한 자료가 없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82%의 정착율은 결코 낮은 정착율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새가족 초청잔치에 대한 설문 결과

수치로써의 점수를 수집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주관적인 설문이 많았기에 아래의 설문 결과를 내놓는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새가족 당사자들과 섬김이 중 17명이 제출한 설문결과이다.

새가족 초청잔치의 목적
① 선창교회의 한 가족임을 느끼게 한다.
② 섬김이의 섬김을 통해 새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섬김을 느끼게 한다.
질문1) 새가족 입장에서 새가족 초청잔치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 평균 89 % (최하 70, 최상 100)
- 잘 짜여 있고, 세밀한 곳까지 신경 써서 섬겨주시는 모습에서 귀하게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다.
- 참여했던 새가족들의 고백을 통해 섬김을 알았다고 고백함
- 목원들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 초청잔치를 통하여 교회나 새가족부에서의 관심과 사랑이 새가족들에게 전하여졌다고 생각함.
- 대체적으로 차 준비는 잘 된 것 같음
- 서로 협력하여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다.
- 처음부터 끝마무리까지 섬김 받는 느낌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 마임(공연)을 보며 마음을 열었고, 퇴장할 때 촛불 길을 걸으며 감동했을 것 같았음
- 준비하면서 한 마음인 것이 느껴져서 정말 교회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꼈습니다. 섬기면서 진심으로 즐기기도 하고 참여하는 제 모습을 스스로 보고 느끼며 은혜 받은 날이었어요. 새가족분들 좋아하니까 더 좋더군요.
- 목적 2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목적 1은 아무래도 새가족들과 섬김이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등의 제한되어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신들과 같은 새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잔치를 벌인 것은 선창교회 한 가족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판이 된 것 같아요.
- 초청된 새가족들이 모두 함께 즐겼기 때문이다.
- 환경과 섬김의 자세를 보고 흡족함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 새신자들이 같은 시기에 등록한 분이라는 것에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 친해지는 것 같다.
- 준비가 잘 돼서 즐겁고 기뻐하시는 것 같다.
- 섬김과 공연을 통해 섬김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선창교회의 새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가족임을 느끼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들을 소개하고 환영하여 새가족과 교역자, 장로들이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음식 서빙, 데코레이션, 섬김이의 자세 등을 통해 새가족이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해 준 프로그램이 된 것으로 말할 수 있겠다.

질문2) 새가족 초청잔치 행사가 불편하거나 수정했으면 하는 것은?
- 테이블간 장소가 비좁았다. X2
- 인도자들도 함께 참여했었으면
- 식사시간이 너무 늦어진 것 같다
- 행사 대상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인 것이 조금...
- 새가족들간의 친교가 생각보다 적음: 나눔이 더 있었으면(교회에서 등록하고 6교구 목원으로서 느낌, 장단점 등)
- 식사가 좀 더 풍성했으면.. 왜냐하면 잔치니까..
- 음식이 식어서 효과가 감해졌을 것 같음
- 뒤에 앉아보니까 창문이 다 열려 있어서 춥습니다. 다시 겉옷을 입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 레크레이션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
- 식사가 조금 메마른 느낌이다.(국물이 없었음)
- 목장 소개가 미흡했다.
- 나눔의 시간이 부족한 듯
- 테이블에 앉은 숫자가 적어서 서로 불편함을 느낌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시간과 장소의 부족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 장소 중 새가족 초청잔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식당밖에 없기에 환경이나 장소의 부족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또한 짧은 시간에 프로그램을 진행 하다보니 다소 아쉬운 부분이 남는 프로그램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질문3) 섬김이, 목자입장에서 새가족 초청잔치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 평균 89 % (최하 70, 최상 100)
- 6교구 섬김이와 목자, 그리고 교회 전체가 새가족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섬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잘 전달되었다.

- 섬기면서 즐겁고 기뻤습니다.
- 새신자를 향한 섬김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역했기 때문에
- 사랑과 관심을 많이 나타냄
- 미리 섬김이 역할을 인지 못하신 권사님 한 분이 옆 테이블 섬김이에게 계속 지시하신 부분
- 장로님들께서 솔선수범하셔서 영접인사를 자진해서 하실 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 섬기는 모습으로 한마음이 되어 섬겼습니다.
- 행사장 환경조성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섬김이들의 열정이 있었음
-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섬기며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보면서 새가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섬김이들도 함께 느끼는 것이 많아서 이번 초청잔치의 목적이 100%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새가족들이 잔치를 즐기며 웃고 함께 교제할 수 있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 촛불 길을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했지만 좋아하셨어요.
- 섬김이와 목자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됨으로 어리둥절했다.
- 새신자들이 자신들을 잘 챙겨줬다고 생각
- 이번 행사를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이 듬

앞서 1번 질문이 새가족 초청잔치에 참석한 새가족들이 느낀 평가라면

3번질문은 새가족 초청잔치를 직접 준비하고 봉사한 섬김이들이 보는 평가이다.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새가족과 섬김이가 즐거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한 가족이 되는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나 섬김이와 목자간의

교육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질문4) 섬김이, 목자입장에서 새가족 초청잔치를 기쁨으로 섬기고, 다른 섬김이들과 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방해했던 요소들(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분주함, 자기 생각
-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다.
- 서로 더 많이 대화하고 나눔이 필요
- 작업동선이 길고 계단을 왕래하는 불편, 작업도구(쟁반) 준비 미흡
- 로뎀에서 커피 만들고 집사님들이 커피 옮기는데 아이들이 복도에서 떠들고 장난치니까 위험해서 아이들 안전하게 모여있을 공간이 필요함

- 컵이 부족해서 바로 바로 음료가 나갈 수 없었어요.
- 봉사하는 과정에서 섬김이들의 자녀들이 너무 왔다갔다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어요. 다음에 이런 잔치를 하게 된다면 자녀들을 따로 케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부족했다.
- 섬김이 수가 적어서 목자의 충분한 의사가 전달되지 않음
- 처음 만난 분을 섬기려고 하니 한계가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한 평가들은 대부분 분주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 이유는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과 행사하는 장소가 1층과 지하 1층으로 각각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식을 옮기고 준비하는데 계단이 많아 섬김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처음 프로젝트로 진행해보니 섬김이들이 움직이는 동선과 작업도구 등의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질문5) 섬김이, 목자입장에서 새가족 초청잔치의 프로그램이나 데코, 서빙 등 수정되거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입구에서 좀 더 열렬한 환영이 있었으면 한다.
- 좀 더 세밀한 부분을 찾고 함께 섬기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 어린아이들을 고려해 자극적이지 않은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새가족들끼리의 공유나 앎의 시간이 잘 주어지지 않은 것 같다.
- 서빙이 체계적이지 못함
- 섬김이들간의 더 긴밀한 화합. 그렇치만 너무 좋았어요..
- 섬김이나 목자의 자녀들을 돌봐줄 섬김이가 따로 있었으면..
- 주스 컵 준비가 약간 미흡함
- 식사가 따뜻했으면 좋았겠다.
- 아래에서 내려다주시는 거 서빙하면서 처음에는 잘되었는데 뒤부터 순서가 엉키고 그러다보니 혼동됨.
- 서빙을 할 때 테이블 번호를 몰라 우왕좌왕 했던 것 같아요
- 환영의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몰랐는데 악보를 미리 받아봤다면 가사도 외우고 새가족들을 바라보며 축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 마임이 난해했다
- 레크레이션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
- 데코는 좋았고, 서빙수를 늘려야 한다.
- 목자도 같이 서빙 했으면 좋겠다.
- 서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다.

- 컵 수량을 미리 준비(약간 모자람)

이 질문에 대한 평가들은 자녀 돌봄이에 대한 필요성, 작업도구 등의 보완, 주방과 식사장소의 고민, 새가족 초청잔치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6교구(정착목장 + 새가족목장)에 대한 설문 결과

마찬가지로 수치로써의 점수를 수집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주관적인 설문이 많았기에 아래의 설문 결과를 내놓는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12명의 새가족 목자 중 10명이 제출한 설문결과이다.

질문1) 새가족 입장에서 6교구가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 평균 71% (최하 20, 최상 100)
- 새가족이 교회나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 목장에서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 따로 섬김받는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 복음이 명확히 전달되고 세워지고 있으므로
-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신앙의 기초가 점검되고 구체적인 영역까지 터치가 되므로 신앙 점검이 된다.
- 섬김의 자세를 보고 배울 수 있다.
- 관계가 이어지고 나눔이 있어서 좋다

이 질문에 대한 평가들은 새가족이 정착목장과 새가족 목장을 거치면서 신앙의 기초가 점검되고 관계 안에서 섬김 받기 때문에 새가족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으리라고 새가족 목자들은 평가할 수 있겠다.

질문2) 새가족 입장에서 6교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앙이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요소(새가족으로서 어려운 점)는 무엇입니까?
- 알고 싶지 않은데 너무 강요하고 있는 것 같고, 가식적인 공부방식이 싫을 것 같습니다.
- 지속적인 목장(예배) 순서가 필요
- 불분명한 복음의 전달

- 새가족이 하나님과 교제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해도 실제의 삶에 거기까지 움직여 가지 않을 때
- 목원의 육아문제
- 목원 수가 너무 적을 때(1~2명) 어색함을 느낌
- 새가족 목장 안에 너무 묶여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일반 목장과 격을 두는 마음이 있다.
-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름

이 질문에 대한 평가들은 새가족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자녀들을 돌보아야 되어서 집중을 못하는 것,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여전히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억지로 교회에 등록한 경우, 새가족 목원이 목장에 1~2명 밖에 안되어 오히려 어색해하는 경우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슷한 시간에 하는 목장모임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섬김이 모집, 신앙에 관심을 가질 때까지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교제할 수 있는 목장 형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질문3) 목자 입장에서 6교구가 본인의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 평균 83% (최하 60, 최상 100)

- 믿음의 기초 반석을 세울 수 있어서
- 같이 복습하고 섬김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
- 자신의 부족한 면과 부지런함을 훈련 받아서 좋았다.
-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면서 더 명확해진다.
- 목원과 함께 배우는 시간
- 그리스도의 섬김을 다시 배울 수 있고, 새가족 성장하는 모습 속에 기쁘다.
- 목자로서 준비하기 위해 기도와 큐티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 힘들어도 꼭 출석하게 된다.
- 목원을 통해 나의 삶을 한번 더 뒤돌아 볼 수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평가들은 목자 대부분이 믿음의 기초를 다시 생각하고 배우고 명확해진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것으로 보아 6교구는 목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섬길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데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준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질문4) 6교구 목자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앙이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목자로 섬기기에 어려운 점)는 무엇입니까?
-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앞장 설 때
- 목원과의 시간 맞추는 것: 목원의 시간에 맞추다보니 힘이 든다.
- 목원이 시간 관계로 잘 모이지 않을 때 낙심되고 다른 사역을 생각하게 된다.
- 목장원의 수가 너무 적어서
-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이 질문에 대한 평가들은 목자와 목원의 시간이 잘 안 맞고, 목자들의 의도대로 목원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 목자들이 힘들어 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목자와 새가족이 만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시간을 미리 아는 것이 필요하고, 새가족에게도 모임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질문5) 목자 입장에서 목원이 어느 정도 6교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계속 6교구에 있어야 한다. (0명)
② 1년동안 6교구에 있어야 한다. (6명)
③ 2년동안 6교구에 있어야 한다. (3명)
- 신앙과 현실의 융화과정이 짧으면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을 바라볼 것 같다.
- 목장에는 타 교회에서 다니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문화를 이해하는데는 1년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1년은 인식, 2년째는 교육이 필요한 시간
- 어느 정도 신앙의 바탕이 된 분들은 1년이 적합합니다. 기존 신자들은 이것이 적합합니다.
- 초신자는 2년이 적합합니다. 교회의 문화를 파악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하므로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른 기관에서 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존 교인은 신앙생활도 잘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존 교인과 어울려 사역해도 될 것 같아서
- 믿음의 확신이 아직 없음으로

이 질문에 대한 평가들을 볼 때 새가족이 새가족 목장인 6교구에 계속 남아있기 보다는 교회의 기존 교구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가족이 기신자인지, 초신자인지로 나누어 적어도 1년은 신앙을 점검하고 기초를 확실히

다진 다음 기존의 교구로 보내는 것이 기존의 교구에 가서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평가

위의 설문지 결과와 같이 새롭게 시작한 새가족 교구(6교구)와 정착목장, 새가족 사역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찾아볼 수 있다. 긍정적인 평가로 먼저 숫자로 보면 정착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교육만 하고 일반 목장으로 보내어 새가족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가거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새가족들이 모여있는 공통된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로의 어려움들 잘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교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게 된다. 그리고 목자가 테이블 섬김이와 새가족 사역들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서 새가족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게 되고, 목자모임을 통해 교육과 서로의 나눔을 통해 도전과 열정을 갖게 되어 새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다. 그럼으로 인해 새가족들의 신앙이 안정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안전한 공동체로 만들어 줌으로 교회의 일원에 대한 마음이 빨리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목장모임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에 대한 학습이나 지식 습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나눔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새가족에게는 실습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된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를 보면 본 프로젝트를 처음 시도하고 시작하는 시점이라 섬길 수 있는 목자가 적고, 목자들을 향한 여러 가지 교육 훈련들이 필요했다. 예를 들면 관계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경으로 삶에 적용되는 훈련이라든지,

경청과 공감 훈련이 안되어 있고, 가르치려는 옛 버릇들이 자꾸만 나와서 새가족들이 강요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로 보여진다. 또한 목장모임을 함에 있어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필요들이 절실하다. 그리고 모임을 할 수 있는 새가족들의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목장들이 골고루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대의 목장만 계속 새가족이 배정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 부분은 추후 목자의 충원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적용 훈련, 관계 안에서의 말씀과 나눔을 강조하다보니 기존 성도들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고 봉사에 대한 마음이 오히려 식어지는 부정적인 면들이 발생되었다. 초신자와 기신자의 기준이 달라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출석 후나 정착목장에서의 교육이 끝나면 봉사와 섬김을 통해 기존 성도와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봉사를 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장유대성교회 새가족 사역 프로젝트

장유대성교회는 김해시 삼문동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교회로 1950년에 부산에서 개척하였고, 2001년에 부산대성교회와 장유대성교회로 분립하여 현재의 위치에 교회를 세웠다. 현재 2000명정도 출석하는 교회이다.

교회의 상황

장유대성교회가 위치한 장유는 김해시와 창원시 사이에 있는 주거밀집지역이다. 불과 5년전만해도 장유는 장유면 이라는 작은 행정구역이었지만 그때에도 인구가 10만명이 넘는 아파트 밀집지역이었다. 현재는 김해시와 창원시 사이의 주거지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인구가 18만명이 넘는 위성도시형 지역으로서

그곳에 장유대성교회가 위치해 있다. 그래서 김해시와 창원시라는 큰 도시에서 직장을 가지고, 거주를 하기 위해 장유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이들은 1~7세의 자녀를 가진 30~40대 부부가 70%를 차지한다. 부산대성교회에서 분립했을 때 장유대성교회로 온 성도들은 200명 가량이었지만, 현재는 약 80명정도가 다니고 있다. 지역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기에 교회에 매주 등록하는 새가족은 평균 3~4명이고, 많을 때는 10명이상이 한꺼번에 등록할 때도 있다. 그래서 1년에 평균 350명의 새가족이 등록한다. 그래서 17년만에 10배의 성장이 된 장유대성교회는 그만큼 새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교회였고, 조직과 체계 또한 잘 자리잡은 교회이다. 새가족교육 외에 바나바 사역이라는 새가족 일대일 양육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장유대성교회의 장년 소그룹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5개의 교구(1~5교구)로 이루어져 있고, 3~5가정으로 이루어진 목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목자들은 목장모임을 인도하고, 매주 수요일 오전에 목자모임을 통해 주일설교를 담임목사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목장에서 나눌 수 있는 소스들을 얻는다.

하지만 이렇게 목자모임을 한다고 해서 모든 목장의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약 60%이상의 목장이 목원들의 사정(육아, 직장 등)으로 인해 모임을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지역으로 이루어진 목장들이기에 목원들이 같은 목장에서 평균 8년 이상 모임을 같이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새가족이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을 마친 후 목장에 들어가면 그 목장의 관습적인 말과 행동 등으로 인해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새가족 시스템 중 바나바 일대일 사역이 있다. 바나바 사역은 새가족 교육 후 3~5주를 일대일로 섬기는 사역이다. 그러다 보니 새가족이 등록해서 교육을

받는 5주 동안에는 교구장 목회자가 찾아가서 심방하는 등록심방 한번이 새가족과 성도가 만나는 유일한 일대일 관계통로였다. 그래서 등록한 인원에 비해 5주간의 새가족 수료인원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새가족 사역을 위한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프로젝트 실행 - 바나바사역

기존의 새가족 교육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주차 - 담임목사와의 만남(영접실)
2주차 - 새가족교육 1 / 구원의 길 그리고 확신(새가족실)
3주차 - 새가족교육 2 / 신앙성숙의 길(새가족실)
4주차 - 새가족교육 3 /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새가족실)
5주차 - 새가족교육 4 / 티바이블스터디(새가족실), 수료식(주일 오후3시 예배)
6~8주차 - 바나바 사역(특정한 장소 없음)

새가족이 등록한 1주차~3주차 사이에 담당교역자는 가능한 등록심방(직접 새가족과 대면)을 하게 한다. 그리고 새가족 수료를 한 후 목장이 편성되고 주일에 교회에서는 바나바라고 불리우는 새가족 섬김이와 만남을 가지며 그들이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교회 생활 안내 등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새가족 정착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새가족이 등록하고 수료해서 바나바를 만나기까지의 4주라는 시간이 새가족에게 방관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4주동안 새가족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무슨 이유로 인해 못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서 그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렵다. 새가족들 또한 이 기간동안 교회에 대한 안내를 극히 일부분만 받을 수 있기에 그들이 궁금해하고 원하는 것을 교회가

파악하기 어렵다. 새가족을 인도한 사람은 인도한 사람 나름대로 새가족이 알아서 교육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신경쓰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새가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착율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표2> 장유대성교회 정착율(2010-2016년)

	등록	수료	수료율
2010년	390	267	68.5%
2011년	347	238	68.6%
2012년	436	265	60.8%
2013년	367	187	51.0%
2014년	338	146	43.2%
2015년	269	129	48.0%
2016년	351	154	43.9%

2010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등록한 새가족의 수는 비슷하지만 수료율은 크게 떨어졌다. 특히 2010년에는 교회근처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이사를 들어오는 시기이기에 타 지역에서 교회를 다닌 기신자들이 많았다고 볼 때 초신자들이 등록하고 수료한 확률은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를 통해 바나바 사역 시기를 새가족 수료 후가 아닌 새가족 교육을 받는 5주간으로 앞당기게 되었다. 즉, 새가족들이 주일예배를 드리고 난 후 새가족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교육 후에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 사역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새가족은 이들의 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가족들은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 교육을 받고 바나바 사역자와 함께 식사나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안내와 함께 교회 가족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새가족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다.

<표3> 2017년 새가족 사역 주일 사역 시간표

교육, 장소 / 시간	1주차교육	2주차교육	3주차교육	4주차교육	5주차교육
	301호				
07:30~08:30	1부 예배: 안내, 영접				
09:00~10:00	2부 예배: 안내, 영접, 교육준비				
10:10~10:30	담임목사님 만남 (10:05~10:10)	새가족 교육			
10:30~		바나바사역			
11:00~12:00	3부 예배: 안내, 영접, 교육준비				
12:10~12:30	담임목사님 만남 (12:05~12:10)	새가족 교육			
12:30~		바나바사역			
13:00~14:00	4부 예배: 안내, 영접				
13:20~14:00	새가족 전체 사역나눔: 이동철목사				
14:00~14:30	행정 정리 및 보고				
14:30~15:00	새가족 수료 준비				

프로젝트 실행 - 새가족 교육교재

기존에는 새가족을 위한 교재가 따로 없었다. 단지 앞에서 교육하는 것을 보고 들을 뿐이었다. 그리고 간단한 교회에 대한 안내가 있긴 하지만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기에 새가족들은 기억하기 어렵고 궁금한 점이나 관심분야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새가족 교육기간 중에는 없었다. 또한 바나바 사역자들도 새가족의 신앙을 확인하는데 기준이 없었는데 교육교재에 나온 내용들을 통해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새가족을 위한 교육교재를 새롭게 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초신자용과 기신자 용을 따로 제작하려 했으나, 새가족 교육 내용, 교회사역 소개, 장유대성교회의 건물과 시설 안내와 신앙생활 안내 등의 중복된 내용들이 많아서

통합된 하나의 교재로 만들었다.

새가족 교육교재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소그룹 신앙공동체(목장, 교회학교)를 알려준다. 두 번째는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과 교회의 시설들에 대한 소개이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과 생활들을 알려준다. 초신자들에게 생소한 단어들과 그 의미들, 교회가 강조하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예배와 헌금, 기신자들도 알아야 하는 경조사의 절차들을 알려준다. 마지막 네 번째는 1~4주차동안 이루어지는 새가족 교육 내용들이다. 이 새가족 교육교재를 통해 새가족은 궁금해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알 수 있고, 새가족 섬김이 뿐만 아니라 목자와 교역자도 이 내용을 기준 삼아 설명해 줄 수 있다.

<표4> 새가족 교육교재 목차(부록1 참조)

새가족 교육교재 목차

새가족 만남과 교육_ 1

교구와 목장, 자치기관_ 2

교회학교_ 4

사회복지사역 소개_ 5

교회 건물과 시설 안내_ 8

교회 용어와 생활 안내_ 9

예배_ 9

예배순서_ 9

기도_ 11

전도_ 14

헌금생활_ 15

세례, 결혼, 장례_ 16

새가족교육 1 – 구원의 길 그리고 확신_17

새가족교육 2 – 신앙성숙의 길_19

새가족교육 3 –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_ 21

새가족교육 4 – 티바이블스터디_ 24

프로젝트 실행 - 바나바 섬김 사역 매뉴얼

기존의 바나바 사역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새가족을 섬겨주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가족들에게 안내하고 확인하고 섬겨야 하는 필수 항목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바나바 사역자들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본 프로젝트에서 현재 섬기고 있는 바나바 사역자들의 섬기고 있는 항목들을 모두 모아서 필수 항목들을 체크하고 추가해야 할 사항들을 넣어서 바나바 섬김 사역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었다. 주차별로 체크하고 확인해야 할 사역 내용들을 줌으로서 바나바 사역자들이 새가족을 섬기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가족들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다음 주의 질문이나 관계를 위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두었다.

<표5> 주차별 바나바 사역 내용

체크	1주차 / 첫 만남 / 선물: 비누
	인사: 4주동안 바나바 섬김이 ○○○입니다. (밝은 미소, 가벼운 대화)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오늘 날씨가 약간 추우시죠? 등
	초신자일 경우: 우리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겠다고 함
	새가족 알기: 새가족의 이름, 가족 사항, 집 주소, 직업 등을 파악.
	다음 주일의 출석을 권면한다.
	간절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과 평안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심방을 마친다.

체크	2주차 / 관계형성
	첫 번째 대화: 한 주간 별 일 없으셨는지? (참고로 대화가 단답형대답이 나오는 질문을 삼가는 것이 좋음)
	인사: 바나바의 간단한 자기소개, 칭찬 거리를 찾는다. (머플러가 잘 어울리네요, 넥타이가 멋집니다 등)
	예배실에서의 행동 요령을 알려준다. (예배실 위치, 기도, 안내 위원의 안내 받음, 주보 확인, 좌석 선택 - 가급적 예배실 앞자리로, 미리 주보를 참고하여 설교본문 및 성경말씀 찾기 등을 안내)
	교회의 주일 낮과 오후, 수요집회의 모임시간을 안내한다.

	우리교회 교회학교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등을 안내하고 자녀들이 교회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권면함.
	첫 교회 출석에 대한 소감, 계속 신앙 생활 가능성 정도 등을 파악한다.
	자연스럽게 이전교회(기신자일 경우)에 관한 이야기 전해 듣기: 교회 이름, 소재지 파악
	힘들어하는 것을 끝까지 잘 듣고 기도해야 한다.
	다음 주 만남 약속 잡기: 몇 시 예배 참석이 가능한지? 혹시 예배 참석을 할 수 없는 사정은 있는지, 주중에 다시 연락 한 번 드려도 괜찮은지 확인, 다음 주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린다고 한 후 짧게 기도로 마무리
	예배 후, 식당까지 동행, 같이 식사를 나눈 후 자연스럽게 주요 인물 소개(3명만)
	주보 사용법안내(함께 하는 순서: 찬양, 말씀 봉독 등, 서거나 앉는 순서), 성경 사용법, 찬송가 사용법 등 안내
	교회 시설물 안내: 화장실, 예배실, 식당, 카페 안내.
	교회로 올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의 불편사항 청취 => 주차카드 확인
	오후 예배, 주간 예배 참석 권면
	새가족 가이드북 안내
	기도제목 묻기
	기신자의 경우 구원 확신 여부(바른 구원관 제시)

체크	3주차 / 가까워지기 / 선물: 찬양 시디, 손수건 or 기도집 중 택 1
	정문에서 반갑게 맞이함(미리 시간 약속)
	예배실로 동행, 주보 받기, 헌금함 사용 안내, 새가족 좌석 안내
	반갑게 인사 나누기: 칭찬 거리를 찾는다.
	함께하는 분 소개해 드리기: 오늘은 ○○○님이 소속될 목장의 목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시설 안내해 드리기: 반드시 교육부서실 소개해 드리기(자녀가 있는 경우)
	함께 다니시면서 혹은 다 마친 후: 이전교회에서 봉사했던 부서 확인하기 혹은 우리 교회에서의 어려운 점 확인하기
	기초적인 신앙 생활 안내(새가족 가이드 북 참고) 예배 순서 설명, 헌금의 종류와 의미, 헌금 드리는 방법,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신앙적 대처 방법 소개(장례, 문상, 명절, 제삿날 등 먼저 교회와 의논할 것을 권면)

	다음 주 만남 약속 잡기: 몇 시 예배 참석이 가능한지? 혹시 예배 참석을 할 수 없는 사정은 있는지 물어보고 짧게 기도로 마무리
	교육과 바나바와의 만남 후 식당까지 동행하여 같이 식사를 하고, 교회 성도 소개 (3명 추가, 지난 주 소개 한 사람과도 미리 가급적 다시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게 한다.)
	오후 예배, 주간 예배 참석을 권면한다.
	앞마당 또는 승차 때까지 배웅
	주차카드반납 광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수료식 참석 안내
	※ 주일 오전 예배에 결석 시 오후예배라도 꼭 나오게 하고, 그것도 힘들다면 수요예배에라도 올 수 있도록 격려

체크	4주차 / 신앙상식 갖추기 /
	함께 오거나 정문에서 반갑게 맞는다. (미리 시간 약속), 칭찬 거리를 찾는다.
	우리 교회의 인상: 호, 불호를 잘 파악한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지 4주째 되셨는데.. 어떠신가요? 적응이 되셨나요?
	우리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 안내하기: 세례는 년 2회 시행하며, 등록 후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 TEE Bible Study(T.E.E.)는 각 단계별 모집 광고가 날 때 신청 가능) 새가족 교육, 세례교육, 성경공부
	우리 교회의 봉사에 대한 안내하기: 교회학교 교사는 1년 이상, 찬양대는 6개월 지나서(등록일자 기준) 교구장 목사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고, 다른 분야의 봉사는 본인이 원할 때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 가능함. 교회 조직과 봉사 활동 안내. 우리교회 내의 각 부 조직을 소개하고 하는 그 조직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을 알려준다.
	봉사 자원서 작성 (미리 준비할 것)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3시)의 수료식 참석 안내
	T.E.E. 신청

Tip 두 번째 만남부터 매 번 1명씩 소개해 드리기(반드시 3명 이상).

매 번 만날 때마다 이름 불러 드리기.

가능하면 새가족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전 교회에 대해 좋은 점 이야기 할 때 호응을 잘해 줄 것.

혹시 우리교회의 단점을 말하면 인상 찌푸리지 말고 '가능한 개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할 것'.

어떤 때라도 반드시 미소를 잃지 말 것.

담임목사님 설교, 사역, 교인들에 대해 칭찬할 것.(교회 포함)

프로젝트 실행 후 분석과 결과

필자는 장유대성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새가족부를 맡게 되었다. 처음 1년(2016년)은 기존의 방식대로 사역을 했고, 이듬해(2017년)에는 위에서 기록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장유대성교회가 위치한 지역에는 이제 인구의 증가가 멈춰가고 인구 이동이 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오는 기신자들의 비율이 높아지며 실제 초신자가 등록하고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것을 보며 계획하기 시작한 프로젝트였고, 그것을 계기로 새가족부 전체의 시스템까지 보충하고 보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전의 정착율은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다. 아래의 정착현황은 2017년 전체 정착율은 아니지만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정착율을 7월 9일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평균 73.9%의 정착율을 보였다. 최근 3년간의 정착율이 45%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표6> 2017년 새가족 정착현황

	등록	정착	정착율(%)
2016년 12월	7	13	76.4
2017년 1월	43	36	83.7
2017년 2월	37	25	67.5
2017년 3월	75	46	61.3
2017년 4월	42	36	85.7
2017년 5월	13	9	69.2
계	227	165	73.9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새가족 사역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질문1) 새가족부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은?

1) 2016년 이전 방식 2
2) 현재방식 17
3) 기타의견 - 별 차이를 못 느낌, 편하기는 이전방식이 좋음

이것으로 보아 이전에 하던 새가족부의 운영방식보다는 대부분 새롭게 보완된 프로젝트가 새가족부의 운영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프로그램이 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질문2) 새가족부 사역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1) 인원의 부족함 11
2) 함께 식사하기에 시간이 부족함 4
3) 함께 나눌 장소의 부족 5
4) 새가족과 함께 식사시 양육팀에 과부하를 주는 것 같아서 부담 2
5) 담당자들과의 상호 소통 및 연결고리의 단절

이것을 보아 운영방식의 변화는 긍정적이고 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가족 섬김이의 인원보충과 함께 새가족을 위한 공간이 절실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질문3) 바나바팀과 교육 섬김팀이 한 팀으로 운영되는 통합사역을 한다면

어려운 점은?
1) 바나바팀과 교육 섬김팀이 우선 화합되어야 함.
2) 섬김 장소가 많이 부족함
3) 다른 사역들이 많아서 지금 시간밖에 안됨

새가족 섬김이들은 주일에도 개인적인 시간과 다른 사역을 섬김으로 인해 새가족부 사역에 집중할 수 없다. 그래서 각자의 사역을 병행하다보니 바나바팀과 교육 섬김팀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 장소가 없었고 두 부서가 새가족부 안에 있지만 서로 오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프로젝트 진행 초반에는 새가족부 안에서 나뉘어져 있는 바나바팀과 교육 섬김팀을 하나로 묶어서 사역운영의 원활함을 계획했지만, 사역시간의 차이, 개인적인 타 봉사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함께 모이는 것조차 힘들었다. 이 설문 결과를 보아 새가족부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섬김 장소와 함께 우리 안에서 먼저 마음으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조직운영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질문4) 새가족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내어주세요.
1) 교육내용을 잘 기억하거나 새가족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음 2
2) 주일에 개인 사정으로 빠지면 중복교육이 되는 점
- 부족한 사람은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함(교역자 or 섬김이) 4
3) 짧고 간단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듯
4) 기신자와 초신자 교육이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8
5) 자영업이나 직장인들을 위해 4부 예배 후에도 새가족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6) 교회의 연혁, 교역자 소개, 연례 행사 등의 소개 필요
7) 5주차 수료교육을 하면서 새가족 설문조사가 필요
8) 인도자를 위한 새가족 등록과 교육에 대한 전체 안내가 필요함
9) 새가족 교육 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함.
10) 전체적으로 만족함 8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 많은 부분 새가족 교육에 대한 의견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장유대성교회는 담당교역자가 새가족부도 맡고 있지만 처음

오는 새가족 안내와 교구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기에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교구의 목회자가 돌아가며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각자 가진 특성과 방향들이 어긋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함이 덜하며 새가족을 향한 집중력이 부족하다. 또한 기신자와 초신자를 향한 교육이 같이 행해지기에 기신자 입장에서는 교육 내용이 너무나 쉽고, 초신자 입장에서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새가족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한 주 이상을 빠지게 되면 같은 교육을 2번 듣게 되는 문제도 있다. 바나바 사역을 통해 보완하고 있지만 새가족 입장에서 두 번 듣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을 볼 때 새가족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가족이 중복 교육을 듣지 않도록 행정적인 보완과 신앙의 상태에 따른 교육의 차별을 두어야 하고, 자녀가 있는 새가족이라면 자녀를 보살펴줄 수 있는 운영정책 또한 마련되어야 하겠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바나바 사역에 대한 설문 조사

질문1) (사역자 입장에서) 작년과 비교해서 섬김 사역을 함에 있어 좋은 점
- 새가족이 교육 수료하는 확률이 증가하는 것 같음 3
- 식사를 함께 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음 2
- 좋은 반찬으로 식사를 해서 좋음
- 섬김이가 교회 첫 인상으로 남을 수 있어서 좋기도 부담스럽기도 함
- 만남 빈도가 높아짐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 바나바 사역자들도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이전보다 더 자주 만나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함으로서 교회에 정착하는 새가족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보아 새가족의 교회 정착과 그들이 교회 일원이 되기에 좋은 영향력을 준 프로그램이 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질문2)(사역자 입장에서)작년과 비교해서 바나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

- 필그림(교회 안에 있는 카페)에 앉는다 해도 주위가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하기 어려움(공간) 8
- 여러 명을 맡게 됨(사역자가 더 필요함) 2
- 나눔 시간이 부족함 2
- 교육 마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만나야 해서 사역시간이 길어짐
- 수료식 안내 등 더 챙겨야 할게 많음
- 좋은 반찬으로 식사를 해서 좋으나 교육팀에 미안함
- 시간과 회수가 짧아짐으로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음
- 새가족이 연락을 안받고 수료식에 대한 안내를 못 받아서 시간이 밀릴 때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한계점이 주로 장소에 대한 의견이 제일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새가족을 위한 교육공간은 있지만 바나바가 섬길 시간에 그 공간은 사용할 수가 없어서 교회 안에 있는 카페 등의 장소를 이용해서 새가족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지만 대부분 시끄럽고 집중이 안되어서 제대로 깊은 얘기를 나눌 수가 없다. 또한 프로젝트 시행 전에는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보다 교육을 수료한 새가족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현재의 바나바 사역자가 섬겨야 할 새가족의 수가 적었다. 하지만 프로젝트 시행 후에는 등록한 새가족 수만큼 바나바 사역자가 섬겨야 했기에 그만큼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현재 프로젝트가 새가족과 그들의 교회 정착, 그리고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만큼 바나바 사역자의 충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질문3) (새가족 입장에서) 작년과 비교해서 섬김 사역을 함에 있어 좋은 점

- 등록 후 바로 섬김이가 붙어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느낌 4
- 긴 시간(9주→4주)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어 좋음 2
- 기간이 짧아서 좋음
- 교육 수료 전에 이모저모에 대해 소개해주어 도움을 얻음
- 교육과 섬김 사역이 같이 종결되어 좋음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새가족들 입장에서 교회에 등록을 함과 동시에

바나바 사역자가 옆에서 함께 있어서 도와주고 소개해준다는 느낌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움과 섬김이 새가족 정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정착율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새가족 프로젝트를 통해 새가족 정착에 좋은 영향력을 준 프로그램이 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질문4) (새가족 입장에서) 작년과 비교해서 섬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
- 교육 마치고 섬김이가 기다리고 있어 감시, 감독 당한다는 느낌
- 새가족이 식사 중 섬김이가 말을 걸어 제대로 식사를 못한다는 느낌
- 교육, 식사, 교재를 함께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함
- 기존 성도들과의 교재가 어렵다
- 섬김이와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아쉬워함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새가족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와 새가족 교육, 바나바 사역까지 거의 2시간을 보내고 가야 하기에 기신자들보다 초신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신자들을 포함해서 새가족들 중에는 교회에는 등록했지만 여전히 교회에는 관심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만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 프로젝트는 부담이 되고 있다. 추후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젝트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문5) (내가 선택한다면) 작년 사역의 시스템과 올해 사역의 시스템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유는?

작년 선택 - 1

이유? 아직 정착이 안된 것 같이 챙길 것이 많고 번잡스러운 느낌

올해 선택 - 8

이유? 정착이 더 잘되는 것 같음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새가족 정착이 잘 되었다는 의견이 90%로 대답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프로젝트가 새가족이 정착함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준 프로그램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평가

위의 설문지 결과와 같이 기존의 새가족 운영에 보완한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이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다.

긍정적인 평가로 정착율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새가족이 처음 등록하고 나서 교육을 받는 5주동안은 새가족들이 인도자에게 의지하거나 인도자조차도 다른 사역 때문에 바쁘면 거의 방치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교회가 크기에 그들이 교회의 일원, 가족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섬김과 관계형성이 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등록한 한 주부터 바나바 사역자가 배정되고, 새가족에게 연락하여 환영의 인사를 하며 주일마다 예배를 함께 드리거나 새가족 교육 후에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관계를 가짐으로써 새가족들은 먼저 교회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큰 교회이기에 여러 가지 관심이나 궁금한 점들을 일대일로 대답해주니 그들이 교회의 외적인 문화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쉬웠다. 또한 새가족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새가족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함께 기도 함으로서 새가족들의 신앙의 기초가 사랑과 관심으로 시작될 수 있다. 또한 단지 일대일 만남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만나게 해줌으로써 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고, 특히 교육 수료 후 배정될 목장의 목자와의 만남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목장모임을 갈 때 어색해 하지 않고, 신앙의 연속성상에서 성장하도록 하며 교회의 일원으로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새가족 교육, 두 번째는 바나바 사역자의 부족, 세 번째는 새가족실의 부재이다. 초신자와 기신자의 교육에 대해 차별성을 두거나 한 주 이상을 주일에 결석했다면 중복된

교육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본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나온 어려움이었다. 이것은 새가족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목회자나 사역자가 충원되고, 아울러 교육할 수 있는 장소까지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이다. 두 번째로 바나바 사역자의 부족이다. 등록한 새가족 만큼 섬겨야 하는 바나바 사역자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새가족을 향한 관심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의 부족이다. 이 부분은 꾸준히 교회 전체의 목회방향 안에서 도전하고 필요성을 나타내고 다양한 관계와 교육들을 통해서 사역자를 발굴하고 초청해야 할 부분이다. 세 번째로 새가족실의 부재이다. 교회의 건물은 크고 장소들은 많지만 새가족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히 큰 장소는 없다. 필요성은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당회가 느끼고 있지만 다른 사역들과의 형평성과 그 사역들을 축소시키면서까지 새가족실을 만든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프로젝트 이전부터도 새가족실의 부재와 부족은 늘 요구되어 왔던 만큼 꼭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제 VI 장

결 론

요약 및 평가

첫째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새가족 정착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방법을 보완하고 그 중요성을 더욱더 인식시키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함께 봉사하고 섬긴 새가족부 모두가 새가족 교육과 정착의 중요성을 공감한 것과 동시에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에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새가족 교육과 정착에 대한 고민은 대형교회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고민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라면 당연히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과 고민이 함께 되어야 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 본 논문의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단지 5주간의 새가족 교육만으로 새가족이 정착한다는 착각을 버리고 새가족이 교회의 문화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목회자만의 몫이 아니라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고민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가족의 필요와 섬김의 포인트를 찾는 통전적인 접근을 하였다. 새가족을 데려온 인도자를 통해 알 수 있는 새가족의 상황들이나 어려운 점을 파악했다. 그리고 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와 식사, 대화 등을 제공하고 이끌어 나갔다. 교리교육 또한

일방적인 설교형식의 교육이 아닌 현 시대에 맞고 새가족의 눈높이에 맞는 미디어를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알찬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새롭게 등록해서 교회의 문화에 어색한 새가족을 위한 배려이고, 새가족과 통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새가족과 통하고자 하는 통전적 교육 접근의 시작점인 것이다.

셋째로 목회자는 새가족 정착과 양육에 있어서 그 과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교리교육이 새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의 하나이지만 그것만을 채워준다고 해서 새가족이 정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짧은 새가족 교육 동안 교리교육을 완벽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일반 소그룹 모임이 아닌, 기초적인 신앙의 주제를 다룬 책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할 수 있는 모임과 리더를 세웠다. 새가족 교육이 마쳤다는 것은 초신자의 경우 단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기신자의 경우는 교회에 정착하고 싶다 라는 의미이다. 그들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자라는 것은 새가족 교육이 끝난 이후부터인 것이다. 통전적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새가족의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소그룹이 아닌 새가족의 신앙 성장이나 성숙을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할 수 있는 리더와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창교회에서와 같이 ‘정착 교육’을 통한 소그룹을 만들었고, 장유대성교회와 같이 바나바 섬김이들의 새가족 이후의 추가 만남과 섬김이 모두 통전적인 교육 접근에 비추어 실행하고 적용했다.

넷째로 교회는 새가족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할 섬김이들을 양육해야 한다. 섬김이는 자기의 목소리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새가족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보여야 하며 정서적, 감정적, 신앙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럼으로 인해 새가족은 교회라는 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이 먼저 심기워져야 한다. 그래서 통전적 교육은 서로 통하고 소통하는 소그룹으로 만들기 위해 리더들을 훈련시켰다. 매주 리더 모임을 통해 리더의 말이나 주장보다 새가족의 말을 많이 듣는 훈련을 강조했고, 새가족이 생각하고 느끼고 궁금해 하는 것을 함께 공감해 줌으로써 리더와 새가족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것이 통전적 교육 접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교회의 소그룹(구역, 목장)은 새가족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 기존의 성도들이 하는 대화 속에 언어나 특정한 말들을 통해 새가족이 어색해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평소의 교육과 훈련들이 필요하다.

여섯째로 교회의 소그룹 리더(구역장, 목자)는 영적으로 잘 깨어있어 신앙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소그룹 모임에서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하나님 안에서의 경험과 간증, 그리고 말씀의 나눔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다. 즉,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삶의 간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분법적인 신앙이 아닌 신앙과 세상의 삶을 모두 통한 삶의 간증들은 이제까지 대부분의 편협적인 신앙 교육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듯 교회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통전적인 교육 접근을 위해 리더를 먼저 준비시켰다. 자체 세미나, 묵상, 리더 모임 등을 통해 리더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고, 새가족의 삶의 나눔을 통해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새가족을 향한 통전적인 교육 접근 방법 안에

있는 것이다.

일곱째로 교회는 새가족 교육이 단지 새가족 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등록한 순간부터 그 신앙이 바로 정립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모든 과정에 새가족 교육에 들어가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필자는 새가족 정착에 있어서 통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단지 전도하고 5주동안 나오면 새가족이 정착한다는 착각, 새가족 교육을 5주동안 받으면 신앙이 생기고 저절로 자라난다는 생각, 새가족 수료를 하면 저절로 성도들과의 거리낌없이 교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필자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단지 한 부분의 교육과 전달만이 아니라 위에서 나열한 통전적인 교육 접근을 통해 새가족을 섬기고 교제하고 전달할 때에 비로소 새가족은 교회에 정착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단지 몇 주간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 모두 통전적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결론과 제언

필자는 대전 선창교회와 장유대성교회를 중심으로 새가족을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통전적 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통전적 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첫번째는 새가족의 정착율 상승이다.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함으로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도와주니 새가족들이 그들의 마음을 쉽게 열 수 있었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그 이유를 충족해

주는 것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할 일이며, 그것이 제자의 삶까지 성장시키는 통전적인 교육으로 봤을 때 중요한 출발점인 것이다.

두번째로 새가족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온 초신자들이나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기신자들도 기본적인 10가지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고민하고, 소그룹 안에서 나누는 통전적인 교육의 시간들이 초신자와 기신자 모두에게 신앙을 점검하고 단단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세번째로 통전적 교육을 통해 새가족들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회와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로써 살아가야하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단지 교회에서 들은 설교나 강의를 머리 속에만 입력하고 살아가는 삶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죽은 교육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 세상이 단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과 관계없다는 이분법적인 교육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통전적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은 단지 새가족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와 세상을 흑백논리와 같이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르치거나 세상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교인,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말씀에 기반된 믿음이 아닌 세상의 원리와 원칙에 기반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 많은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필자는 그들이 처음 교회에 와서 받았던 새가족 교육이 큰 몫을 담당했음을 느꼈다. 이제는 새가족 교육에 대한 생각과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단지 등록한 새가족이 몇 주간의 교육만

받으면 신앙이 생기고 저절로 자라난다는 잘못된 착각을 버리고, 한명 한명에 대해 귀 기울이고 섬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통전적인 범위 안에서 새가족을 바라보고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과 필요, 그에 따라 눈에 보이는 새가족 정착율의 상승이라는 결과도 보았지만, 프로젝트를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회는 새가족이 영적 어린 아이임을 인식하고 새가족에 대해 더 깊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오로지 이 자녀를 위해 집의 분위기, 방의 배치, 삶의 스케줄 등이 모두 바꾸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영적인 어린아이인 새가족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새가족을 위한 장소, 그들을 위한 교육, 스케줄, 그리고 섬김이가 부족하지 않게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다른 일이나 사역들로 인하여 우선 순위에 있어서 밀리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다. 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하고 그 영혼이 교회에 등록해서 정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한다면, 다른 사역보다 새가족 사역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 결코 안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교회 성도들은 새가족부에게만 그 교육의 책임을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새가족부가 섬기는 시간은 새가족 교육과 모임 중이지만, 새가족이 예배드리기 위해 온 주차장에서부터 식당까지의 모든 시간 보는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들이다.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배려가 없다면 새가족은 더 이상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용기를 얻지 못하고 떠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새가족을 직접 만나고 섬길 수 있는 섬김이들이 많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그들을 위한 부르심과 교육들이 자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섬김이들이 오래 섬겼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섬김이들이 계속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소그룹(구역, 목장)과 리더(구역장, 목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새가족이 들어왔을 때 편안하고 안전한 신앙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초청하고 함께 교제하는 따뜻함과 포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선창교회나 장유대성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새가족의 영적 성장에 맞게 좀더 세부적인 새가족 교육 과정이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회 여건상 여러 교육자와 장소의 부족으로 초신자와 기신자를 함께 교육하고, 주일에 빠진 분들이 같은 교육을 2번 받는 것에 대한 다른 대안을 진행해보진 못했지만, 이 부분은 추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선창교회와 장유대성교회 새가족들을 향한 통전적인 교육을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절실함과 필요성을 깨닫고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부록1.

장유대성교회 새가족 교육 교재

1. 새가족 만남과 교육

목장, 자치회 가입

등록 후 목장과 자치회에 가입되며 주중에 담당교역자의 심방이 있습니다.

(교구_ 목장: 지역으로 구분)

(자치회_ 남선교회, 여전도회: 연령으로 구분)

새가족 만남

담임목사님과의 만남과 등록 첫 주에 간단한 등록안내(각 예배 후 은혜관 202호)와 다음주부터 시작될 5주간의 교육(매 주일 2부(9시), 3부(11시) 예배 후 새가족실(비전관 301호)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새가족 사역

새가족들의 교회 정착을 돕는 과정으로 새가족 교육과 바나바 사역을 통해 도우며 기본적인 신앙생활 안내와 함께 교회 시설과 사역 등을 소개합니다.

2. 교구와 목장, 자치기관

(1) 교구, 목장

우리교회 목장 모임은 교구별로 내 20-30개의 목장이 지역별로 주간시간에 운영되며 평일, 야간, 부부목장 등 특별 운영되는 목장도 있습니다. 해당지역

교구장 목사 5분이 담당하며, 각 목장을 담당하는 목자와 목자를 돕는 예비목자가 있습니다.

(2) 자치기관

연령별로 해당기관이 있습니다.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각 기관 및 부서에서 봉사하시고 싶은 분들을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서와 기관에 따라 참여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교회학교

예배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0-3세)	주일 오전 10:30	104
유아부(4-5세)	주일 오전 11:00	B08
유치부(6-7세)	주일 오전 11:00	B09
유년부(초1-2학년)	주일 오전 11:00	B10
초등부(초3-4학년)	주일 오전 11:00	비전홀
소년부(초5-6학년)	주일 오전 11:00	소망관
아동1부(초1-3학년)	주일 오전 9:00	B02
아동2부(초4-6학년)	주일 오전 9:00	B09
중등부(중1-3학년)	주일 오전 9:00	비전홀
고등부(고1-3학년)	주일 오전 9:00	B01
교회학교 오후프로그램	주일 오후 3:00	비전홀
청년1부(20-30세 미혼)	주일 오후 1:00	B01
청년2부(31세 이상 미혼)	주일 오후 1:00	은혜홀
사랑부(발달장애아동)	주일 오후 12:40	소망관
늘푸른학교(70세이상)	매월 마지막주 오후12:50	B09

4. 사회 복지 사역 소개

(1) 아동가족 복지사업

- 행복한 세상 나들이(아기학교)

유아기 첫 사회활동을 엄마와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동화구연, 유아음악, 체조놀이, 소풍, 친구초청운동회, 미술 퍼포먼스 등

이용대상_ 생후 24개월-48개월의 유아와 어머니(보호자)

- 행복한 세상 나들이(임산부학교)

밝고 건강한 태내환경 조성 등 건강한 출산을 돕는 프로그램

임산부 심리 등 이론 강의, 스트레칭, 음식태교, 산책태교 등 체험학습

이용대상_ 예비 신부 및 임신 여성

- 아미고스(홈런 키즈 & 맘)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종합서비스

한글교실, 요리교실, 문화탐방, 가족통합 프로그램 등

이용대상_ 다문화 가정 아동과 결혼 이주여성

- 사랑의 도시락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과 어려운 환경에 놓인 조손,

한부모 가정에 영양 있는 도시락을 지원하여 정서적지지 및 경제적 필요를 돕는

음식 사랑 나눔 사업

이용대상_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조손, 한 부모, 장애인 등

- 어깨동무학교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건강한 자아상을 찾아가는 통합 프로그램

미술치료, 음악치료, 운동치료, 야외 체험학습 등

이용대상_ 6세-13세 장애아동과 자원봉사 활동학생

-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사업

가정의 경제적 사정으로 학교급식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돕는 공익사업

선정대상_ 기초생활수급가정, 차상위, 한 부모,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장유 1,2,3동 내 중, 고등학교 재학생

- 꿈 담은 장학사업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찾아 안정 속에서 꿈을 이루도록 돕는 공익사업

선정대상_ 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2) 노인 복지사업

- 북카페 & 필그림

차와 음악, 웃음이 있는 지역 주민 모두에게 열린 교제의 공간. 책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북카페

※ 북카페, 필그림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꿈 담은 장학사업'의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이용대상_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시간_ 월 - 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토 - 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 키즈랜드

육아문제로 자기계발, 여가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마련한 실내놀이 시설로 무료로 이용

이용대상_ 3세 이상 - 6세 이하 유아만 이용 가능

이용시간_ 월 - 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일 오전 12시 30분 - 오후 3시

- 소식지 '품'

재단과 산하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소개함으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장유대성복지재단의 계간 소식지

- 밀알회

기관 요청시, 긴급 재해 발생시 개인 및 기관에 지원

생활비 지원_ 극빈자, 수급권자, 저소득층 가정에 매월 지원

- 두란노 작은 도서관

김해시에 등록(2012-04호)된 작은 도서관으로 일반도서 2,500여 권, 아동청소년도서 4,000여 권, 영어도서 1,500여 권 등 다양한 도서 구비

이용대상_ 지역주민, 성도 누구나

이용시간_ 월 - 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토 - 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 평생교육 프로그램

자기계발과 지역 내 다채로운 교육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 20여 개의 강좌가 연 2회(봄/가을학기) 운영

운영시간_ 봄(3-6월), 가을(9-12월)

- 행복기부디자이너

지역사회에 장유대성 복지재단의 사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및 후원금 모금 관련 행사를 기획하여 후원자를 발굴하는 소셜 펀드메이커(사회기금 모금가)

- 사랑 나눔 자선바자회

2002년 제 1회 개최를 시작한 사랑 나눔 자선바자회는 성도,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알뜰한 주부들을 위한 각종 생필품매장, 성도들이 직접 조리한 맛있는 요리가 있는 음식매장, 신선한 농산물과 믿을 수 있는 가공 식품이 있는 식품매장, 무 농약 농산물, 무방부제, 무 첨가제, 무 색소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유기농 매장, 그리고 성도들과 지역민들이 기증해 주신 물품을 판매하는 기부매장 등으로 운영된다.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장유대성복지재단을 통해 장유지역 13개교 초, 중, 고등학생의 결식 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2015학년도가지 총 지원 인원 1,388명 / 총 지원 금액은 499,000,000원이다.

운영시간_ 매년 10월 셋째 주 목, 금(오전 10시 - 오후 8시)

(3) 지역 복지사업

- 청춘 대학

지역의 건강한 노인문화와 복지행상을 위해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이용대상_ 만 65세 이상 어르신(정원 300명)

- 사랑,해 빨간 밥 차

“사랑,해 빨간 밥 차”는 BC카드와 서울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가 기탁하고 장유대성교회가 후원하여 운영하는 이동식 노인 무료 급식차량

이용대상_ 만 65세 이상 어르신, 노숙인, 장애인 등

- 청소년 토요 사랑,해 빨간 밥차(청토 밥차)

청소년이 청소년에 의한 어르신을 위한 빨간 밥차로 김해 관내 중 . 고등학생 청소년이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운영하는 이동식 노인무료 급식차량

이용대상_ 만 65세 이상 어르신, 노숙인, 장애인 등

(4) 복지재단 산하시설

- 꿈샘 지역 아동센터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이혼, 실직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문제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과 후 혼자 지내는 아이들을 교육, 보호하기 위해 운영

이용대상_ 초등학생(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한 부모 가정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수업시간_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 - 7시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프로그램_ 독서논술, 동화구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미술, 음악, 전래동요, 특별활동, 견학 등

- 장유대성 시니어 아카데미 센터

지역의 어르신들께 편안한 쉼과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교실로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행복한 사랑방으로 운영

운영시간_ 매주 월, 금 오전 10시 - 오후 3시

이용대상_ 장유 2동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5. 교회 건물과 시설 안내

(1) 교회 시설 안내와 주차안내

은혜관 지하 - B01, B02, B03

1층 - 필그림, 키즈랜드, 만나홀(식당), 남녀 화장실

2층 - 본당(은혜홀), 201, 202

3층 - 본당(은혜홀)

4층 - 본당(은혜홀) 2층, 방송실

비전관 지하 - B04, B05, B06, B07, B08, B09, B10, B11, 남녀 화장실

1층 - 선교원, 기도실, 미스바, 관리실, 101, 102, 103, 104, 남녀 화장실

2층 - 목양실, 상담실, 사무실, 교역자실, 당회실, 선교원, 선교원사무실, 두란노작은도서관, 204, 205, 206, 청년부실, 여자 화장실

3층 - 장유대성복지재단사무국, 새가족부실, 로뎀(쉼터), 남녀 실버실,

비전홀, 호산나실, 301, 302, 남녀 화장실

4층 - 삼층천(옥상정원)

- 주차안내

주일 예배 시 교회 안 주차장은 새가족과 장애인들을 먼저 배려해 주십시오.

주일 봉사자들은 가급적 교회 밖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주차 시 봉사자들의 안내를 따라 주십시오.

6. 교회 용어와 생활 안내

(1)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의무이자 권리요,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실천해 봅시다 -

1. 성경 찬송을 준비합니다.

(새가족 5주간의 과정을 수료하시면 신앙서적 혹은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2. 미리 미리 준비하여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합니다.

3. 앞자리부터 차례대로 앉아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4. 헌금 등은 정성스럽게 미리 준비합니다.

5. 휴대 전화는 진동으로 전환하거나 꺼 놓습니다.

(2) 예배 순서에 대한 이해 (주보) - 주일 예배순서를 중심으로

주보란 일반적으로 매주일 예배를 안내하는 교회의 자료로서 모든 예배와 교회의 각종 소식들이 기록 되어 있는 인쇄물입니다.

1) 예배 부름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회중들을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순서. 예배의 주체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때에 회중들은 말씀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를 가다듬게 됩니다.

2) 찬송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두가 일어서서 응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입니다. 예배 시 가장 먼저 부르는 찬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참회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죄악을 그대로 품고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이 참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서 있는 실존으로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내놓고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를 간구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의 용서 받아야 할 사연을 함께 고백합니다.

4) 사죄선언

참회의 기도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순서로 회중들이 고백한 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5) 신앙고백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전통적이고 공식적이며 성경적인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6) 기도

1부에는 안수집사, 2~4부에는 장로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7) 찬양대의 찬양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경외를 드리는 부분이며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마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8) 설교 말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의 언어로 회중들에게 다시 해석해주고 그들의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현장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말씀의 선포이며, 해석이며, 적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중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경험하고 삶의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9) 봉헌

예배로 들어오면서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예물 드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응답의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며, 예배에 나아온 회중이 스스로 우러나는 감사의 답으로 내어놓는 모든 마음과 정성의 표현입니다.

10) 축도

축도는 예배드리는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심을 선언하는 예배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내용으로 축도를 합니다.

11)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기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늘 보고(寶庫)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라는 특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왜 기도해야 합니까?

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하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②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 = 매일 기도 = 기도로 사는 삶

②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어떤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3)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다음의 순서로 기도합니다.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참고하기

① 찬양과 감사

② 죄를 고백합니다.

③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④ 간구할 내용을 아룁니다.

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기도를 맺습니다.

4) 기도 응답을 위해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②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③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④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 100% 기도 응답 3가지 종류 -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그래(Yes)” 혹은 “안 된다(No)” 혹은 “기다리라(Wait)"고 100% 응답하십니다.

[참고] [기도하는 방법_다섯 손가락 기도]

엄지: 하나님(기도는 하나님께)

검지: 감사합니다.(감사)

중지: 잘못했어요.용서해주세요.(회개)

약지: 도와주세요.(간구)

새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첫째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성호를 부릅니다(마 6:9).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마 6:9)

"거룩하신 아버지여"(요 17:11)

둘째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시편 100:4)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 100:4)

셋째로: 죄를 자복합니다.(시편 32:1.5)

마음 속에 죄가 있으면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 66:18)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사 59:1-2)

넷째로: 소원을 간구합니다. (빌립보서 4:6)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 놓으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 뜻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마 7:7)

“너희가 악할 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 11:13; 11:9~10 참조)

중보기도라고 가족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

다섯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허락하신 것을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간구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이 하는 개인기도가 있고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공중기도가 있으며 마음속으로 묵상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비결이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기도로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생애를 사셨다면, 죄 많은 우리들은 더욱 기도 많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시오. 놀라운 경험과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실 것입니다.

교회에 잘 적응하는 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말고 잘 어울리고 봉사하고 참여하여 함께하면, 적응도 되고, 친하여지고, 익숙해져서, 재미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4) 전도란 무엇일까요?

1) 전도는 무엇입니까?

① 전도는 인도와 다릅니다.

② 전도는 구원의 축복을 증거(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 왜 전도해야 합니까?

①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②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③ 전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④ 전도는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3) 전도하기 전에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① 하나님께서 전도자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②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③ 전도 대상자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④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5) 헌금 생활 안내

십일조 헌금을 제외한 모든 헌금은 헌금의 액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십일조헌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소득의 십 분의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으로 모든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십일조 봉투는 일회용과 일년용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두 경우 다 모든 내용은 교회전산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2) 주일(주정)헌금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주일헌금이라 하며 그 중 액수를 정하여 드리는 것을 주정헌금이라고 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주일헌금봉투를 무기명으로 재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헌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헌금으로 내용에 따라 여러 종류(생일, 건강, 취업, 이사, 건강, 취직, 졸업 등)의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감사헌금봉투는 일회용으로 표지에 감사내용을 기록하면 담임목사님과 교구목사님께서 읽고 기도해 주십니다.

4) 선교헌금

선교사들을 후원하여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5) 목장예배헌금

목장 예배 시 드리는 헌금으로 그 중 50%는 교회로, 50%는 목장이 감당하는 전도, 선교, 구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드리는 헌금입니다.

6) 구제와 장학헌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아이들의 어려움과 학업을 돕는 사랑의 헌금입니다.

(6) 교회 생활 안내: 세례, 결혼, 장례

① 세례, 입교, 유아세례 신청

세례, 입교 신청은 본 교회 등록 1년 이상된 교인으로 청원서를 작성한 후

교육과 문답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봄 4월, 가을 10월

② 유아세례 신청은 부모 중 한 분이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으로 자녀가 2세 미만이면 됩니다. / 봄 5월 첫 주(어린이주일), 겨울 12월 25일(성탄주일)

③ 결혼, 장례 신청

담임목사의 주례로 결혼할 경우: 교회(본 교회, 타 교회)에서 결혼예식을 할 때만 가능하며 신랑, 신부 두분 모두 세례교인으로 한 분 이상이 본 교회 등록 교인일 때 가능합니다. 단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할 경우 담당 교구장 목사에게 주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각종 서류 신청

· 비전관 2층 사무실, 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행정

·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명서: 본 교회에서 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받았거나 타 교회에서 받은 것이 확인된 성도

· 교인 증명서: 교회에 등록한지 4개월이 지난 성도

· 기부금 증명서: 헌금봉투에 이름을 기재하신 성도

⑤ 신앙상담

담임목사 및 해당 교구 목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55-723-2001~3

◇ 새가족 교육 1과 「구원의 길 그리고 확신」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죄 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

-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찾아봅시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 재난을 당하여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 줌

- 구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 냄

②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면 어떤 직업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소방관(119 구급대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응급상황이나 사고현장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가능한 빨리 출동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소방관입니다.

우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를 도와 그 상황에서 구원해줄(구조, 구원) 그 누군가의 손길을 찾게 됩니다.

③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 한계상황: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 우리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한계상황 세 가지: 죄, 질병, 죽음

이 세 가지 문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풀 수 없고 뛰어 넘을 수 없는 높은 장벽입니다. 그야말로 한계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하나님의(절대자, 신)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④ 함께 생각해 보기

- 당신은 보험에 가입했습니까?

-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

- 보험은 언제 나에게 도움을 줍니까? 살아 있는 동안에만?!

-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⑤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해줄 보험이 있습니다.

- 천국보험, 영생의 보험

-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보험증권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영생의 보험(천국의 보험) 증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질병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한계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⑥ 예수님이 인생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의 진실된 기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과 삶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새가족 교육 2과 신앙성숙의 길

① 자라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성숙한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일이나, 특성이” 단계를 거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에 이르다. 라고 정의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철이 든다는 것이지요. 만약 자라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키는 110㎝입니다. 불과 2살 때, 희귀병인 가연 골무 형성증을 앓은 뒤 자라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살, 유치원에서도 너무 긴 원복 때문에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와 함께 소풍 가는 것을 싫어했고, 결국 어머니 등에 업혀 소풍을 가야만 했습니다. 엉엉 우는 바람에 어머니 등은 흠뻑 젖었죠. 아이는 친구들 눈에 띄기 싫어 쉬는 시간에 화장실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탁월하고, 훌륭한 아이로 자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아이들이 자라는 대로 자라기만 해도 큰 걱정은 안 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 할 때 말해야 되고, 걸음마를 하기 시작할 때 걸음마를 해야 됩니다. 입학 할 때 입학하고, 졸업할 때 졸업하며, 결혼 할 때 결혼해야 부모가 걱정을 안 합니다. 꼭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건강하게, 슬기롭게 자라는 것이 효도일 것입니다.

신앙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은 신생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부모의 기쁨이듯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을까요?

② 신앙은 어떻게 자라날까?

a.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자랄 수 있습니다.

>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2)

갓난아기들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b. 성도가 서로 만나고 함께 하는 시간들을 통해 자랄 수 있습니다.

>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2:42)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아프리카 속담)

c. 기도하므로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2:42)

③ 궁극적인 도달점.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일까요?)

a. 구원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롬15: 13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벧전 2:2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b.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

마 22:37-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c.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 새가족 교육 3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그저 하나의 건물로 이해합니다. 이런 이해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라는 작은

부분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교회’의 의미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근본적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단어(마 16:18)로 ‘에클레시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 모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성경은 이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의 몸(엡 1:23; 고전 12:27)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지체 각자는 결코 혼자서는 무엇을 할 수 없기에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또한 몸은 몸의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각 지체 하나 하나가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②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신앙공동체인 교회로 만드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a. 교회는 예배공동체입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예배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됩니다.

b.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을 다른 말로 '성도 聖徒'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레 11:45)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c.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은 절망적인 소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교회 스스로에게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온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주고, 상처를 치유하는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마 5:13-

14)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락하고 죄악 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절망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선포하고 그것을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실천하며 사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장유대성교회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 교육 4과 티바이블 스터디

① 티바이블 스터디 소개

a. T.E.E.

Theological(신학):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의 뜻은 무엇인가?

Education(교육):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by Extension(연장):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가서 하는 신학교육

b. 교재의 특징

- 프로그램된 학습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학습을

돕는다.

- 쉬운 내용: 한글만 알면 누구나 완벽한 예습이 가능하며, 책 속에 모든 답이 담겨있다.

- 제한된 범위: 한 주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 토론 주제 제시: 소그룹이 함께 고민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c. 티바이블 스터디란?

- 장유대성교회 양육 프로그램(성경공부).

- T.E.E. 교재로 하는 '소그룹 공동체 학습'.

- 지식의 주입에 그치는 것이 아닌, 행위의 변화, 성품의 변화에까지 나아가는 과정.

- 소그룹 공동체 학습을 통해 서로서로 가르치며, 공동체로 살기를 배우게 됨.

② 교육방법 변화의 필요성 (강의식 → 소그룹 학습)

a. 강의식 교육

-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한다.

- 지루하거나 머리가 지끈거린다.

- 너무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여 순간적인 지식은 증가하지만 금방 잊어버린다.

- 삶의 변화에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 개인주의적이다.

b. EBS 다큐프라임 교육대기획 6부작 「제 1부 시험」

- 서울대에서 A+ 받는 학생들의 비법 (서울대생 1,111명 응답)

. 교수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노트북에 받아 적어서 그대로

외워서

쓴다.

. 교수의 의견과 다른 내용을 시험 답안지에 적거나 과제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학생들은 대부분 학점을 낮게 받았다.

. 통째로 외워서 적을수록 높은 학점을 받지만, 기억에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 미시건 대학교에서 고학점을 받은 학생들 (미시건 대생 973명 응답)

. 필기를 하지 않는다. 인상적인 내용이나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만 메모하는 편이다.

. 교수의 의견과 다르게 답했다고 해서, 한 번도 학점에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

. 창의적인 의견을 밝힐수록 오히려 좋은 학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c. EBS 다큐멘터리 「최고의 교수」 - 명문대에서 최고의 교수로 이름난 교수 9명 인터뷰

- 입이 아니라 귀로 가르친다 - 로드아일랜드 산업디자인학과 C. 캐넌 교수

- 학생들을 딜레마에 빠뜨리다 - 하버드대 정치철학과 M. 샌들 교수

- 필기할 생각에 차라리 생각을 하라 - 예일대 물리학과 R. 샹커 교수

- 최상급 강의는 학생의 질문에 다른 학생이 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미시건대 조벽 교수

③ 소그룹 공동체 학습의 특징 - 파커 파머의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中

a. 개방성, 경계, 환대

- 개방성: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갈 수 있어야 한다.
- 경계: 경계가 없는 공간은 공간이 아니다. 주어진 주제 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 환대: 어떤 의견이든지 환영 받을 수 있어야 한다.

b. 물리적 공간, 개념적 공간, 극적 공간, 감정의 공간

- 물리적 공간: 의자를 원형으로 배치하여 열린 분위기를 형성한다.
- 개념적 공간: 적은 분량의 내용을 다루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 극적 공간(dramatic space): 관객들을 극(drama)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 감정의 공간: 공간이 주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아야 한다.

④ 티바이블 스터디 학습방법

a. 소그룹 공동체 학습

- 적절한 인원의 소그룹: 한 반에 5~12명으로 구성되며 자리 배치는 원형으로 한다.
- 쉬운 교재 예습: 많지 않은 분량을 미리 예습함으로써 대화의 주제(경계)가 설정된다.
- 강사가 아닌 인도자: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서로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 환대: 어떤 의견이든지 환대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관계 형성).
- 공동체의 형성: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겨난다.

- 삶의 변화: 실천과제를 통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b. 소그룹 공동체 학습의 장점

- 오래 기억된다.
- 실제 삶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
- 다른 조원들을 알 수 있다.
- 친밀해진다.
- 쉽고 재미있고 변화가 있다.

⑤ 티바이블 스터디의 유익

a. 말씀의 기초가 훈련이 되어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진다.

b. 말씀과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게 된다.

c. 교제가 풍성해져서 서로 잘 몰랐던 교우들과 친밀해진다.

d. 새가족의 정착률이 높아진다.

e. 봉사자들이 늘어난다(봉사 의지가 생기고, 서로 친밀해져서 함께 봉사하고자 함).

f. 가정의 변화, 개인의 변화에 대한 간증이 많아진다.

참고 문헌

외국어서적

Granz, Stanley J. *A Primer on Postmodernism.*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6.

Richards, L.P. *A Theology of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 The Zondervan Co., 1978.

Sherrill, Lewis J.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 1944.

Sweeting, George. *How to Begin the Christian Life.* Chicago: Moody press, 1980.

Weterhoff, John H. *Living the Faith Community.* New York: The Seabury Press, 2004.

Weterhoff, John H. *A Collopuy on 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 United Church Education, 1972.

Weterhoff, John H.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6.

번역서적

Arn, Win. *The Pastors Church Growth Handbook.* 임방환 역. *교회성장 핸드북.* 서울: 요단출판사, 1981.

Clements, Ronald E. *Old Testament Theology.* 김찬국 역. *구약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Dulles, Avery. *Model of the Church.* 김기철 역. *교회의 모델.* 서울: 도서출판 조명문화사, 1992.

Eavey, C. B.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김근수·신청기 역. *기독교 교육사.*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95.

Fowler, James W. *Stages of Faith.* 사미자 역. *신앙의 발달단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Groome, Thomas H.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이기문 역. *기독교적 종교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사, 1983.

Harris, Maria.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고용수 역. *교육목회 커리큘럼*.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Henrichsen, Walter A. *Disciples are Made*. 한국 네비게이트선교회 역. *훈련으로 되는 제자*. 서울: 한국 네비게이트선교회, 1981.

Hodgson, Peter C., King, Robert H. *Christian Theology*. 황승룡 역. *기독교 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2.

Kuhne, Gary W. *The Dynamics of Personal Follow-Up*. 정학봉 역. *개인적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서울: 요단출판사, 1979.

Lindgren, Alvin J. *Foundation for Purposeful Church Administration*. 박근원 역. *교회개발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7.

McLuhan, Marshall. *The Medium is the Massage*. 김진홍 역. *미디어는 맛사지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Miller, Donald E.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고용수·장종철 역. *기독교 교육 개론*.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9.

More, Waylon B. *New Testament Follow-up*. 정학봉 역.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서울: 요단출판사, 1978.

Peterson, Michael L. *Philosophy of Education: Issues and Options*. 김도일 역. *기독교교육을 위한 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Schaller, Lyle E. *Assimilating New Members*. 고명수 역. *새교인 교육론*.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2.

Smart, James D.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정윤철 역. *교회의 교육적 사명*. 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77.

Stedman, Ray C. *Body Life*. 홍성국 역. *그리스도의 지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Sweet, Leonard. *Postmodern Pilgrim: To Guide the Future Church into the 21st Century*. 김영래 역.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서울: 좋은 씨앗, 2004.

Weterhoff, John H. *A Collopuy on Christian Education*. 김재은 역. *기독교교육 논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Weterhoff, John H.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정웅섭 역. *교회의 신앙교육*. 서울: 기독교교육협회, 1983.

Williams, Colin W. *John Wesley's Theology Today*. 이계준 역. *존 웨슬리의 신학*. 서울: 전망사, 1990.

한국어서적

구덕관. *구약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1996.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헌법*. 서울: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출판부, 1996.

김재은. *교육목회*. 서울: 성서연구사, 1998.

김춘실. *소그룹 목회와 새신자 양육원리*. 서울: 쿰란 출판사, 1999.

김태원. *교회교육 커리큘럼*. 서울: 종로서적출판사, 1986.

김태원. *기독교 교육사*. 서울: 육일문화사, 1993.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7.

오인탁 외 공저. *기독교 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6.

이상근. *신약주해 살전-디도*.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78.

장일선. *구약신학의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장종철. *기독교 교육 역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출판부, 1993.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통독원, 2007.

논문, 잡지

고용수. "한국교회 성인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48, *목회와신학*, 1993년, 306-307.

김정훈.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통전적 가르침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2005.

김재은. “카테큐메나테 모형을 적용한 신앙공동체 성인교육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소고.” 35, *신학과세계*, 1997년, 240-241.

김재은. “기독교 교육 교육과정의 변천.” 17, *신학과세계*, 1988, 299-347.

송순재. “루터의 교리문답과 그 교수학적 가능성.” 27, *신학과세계*, 1993, 284-285.

윤영민. “새신자 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신학지남*, 2014, 285-303.

은준관. “선교 2세기를 향한 한국교회 교육의 과제.” 325, *기독교사상*, 1985, 19.

조병호.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자료집. 2007, 23.

추교윤. “[읽은 양 찾기]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 사목정보, 2008, 15-18.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Dong Choul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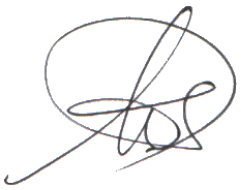
Place and Date of Birth: AnKang, South Korea, Feb.20, 1977

Parent`s Names: Ikwon Lee and Sookhee Choi

EDUCATIONAL INSTITUTIONS

School (Name and Address)		Degree	Date
Secondary:	**Geumjeong High School** 60-14, Myeongjang-ro 63beon-gil, Dongnae-gu, Busan, South Korea.	Diploma	Feb. 3, 1995
Collegiate:	**Kosin University** 194, Wachi-ro, Yeongdo-gu, Busan, South Korea.	B.A.	Jul. 13, 2003
Graduate:	**Presbyterian University** 129, Haebancheon-ro, Gimhae-si, Gyeongsangnam-do, South Korea.	M.div	Feb. 15, 2008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Dong Choul Lee

Name typed

May 4. 2018.

Date